

전북도, 한우산업 경쟁력 강화 53억 투입

7개 사업 추진 한우 유전체 개량
 혈통·기초데이터 체계 구축
 2만3천두 유전체 분석·컨설팅 지원
 계획교배·상위 20% 집중 육성

전북도가 한우산업의 질을 높이는 구조개선에 나선다.

단순 사육두수 유지에서 벗어나, 유전체 분석과 혈통 데이터에 기반한 과학적 개량으로 농가 생산성과 경쟁력을 끌어올리겠다는 구상이다.

도는 2026년 한우 개량·육성 7개 사업에 총 53억 원을 투입해 개량의 기초 데이터 확보부터 계획교배, 번식관리, 도매 지원까지 전 주기를 체계적으로 지원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전북은 현재 42만여 두의 한우를 사육하며 전국 사육두수의 12.7%를 차지하는 전국 3위 규모의 기반을 갖추고 있다. 거세 한우의 1++ 출현율도 41.1%로 전국 평균(39.1%)을 웃도는 등 이미 우수한 개량 성과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사육비 상승과 송아지 가격 변동성 확대로 농가 경영 불안이 커지면서 '양' 중심에서 '질' 중심으로의 정책 전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도는 우선 가축시장 거래 한우 3만 4천두에 대한 친자확인 검사(9억6,000만원)로 혈통의 신뢰도를 확보하고, 9만두에 대한 기초·혈통·고등 등록 지원(10억8,000만원)을 통해 개량에 활용할 수 있는 기초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축적한다.

핵심은 유전체 분석으로 2만3천두를 대상으로 유전체 분석과 맞춤형 컨설팅(23억원)을 지원해 농가별 계획교

배가 가능하도록 하고, 분석 결과 상위 20% 고능력 한우는 지정·관리하고, 하위 20% 암소는 도태 또는 비육 전환을 유도함으로써 '좋은 유전형질은 늘리고 낮은 유전형질은 줄이는' 구조 전환을 추진한다.

또 고능력 암소 보유 농가에는 조기 임신진단 키트 2만 개(2억6,400만원)를 지원해 번식 효율을 높이고 사육기간 단축과 경영비 절감으로 이어지도록 한다. 저능력 암소에 대해서는 도태 장려금(3억5,000만원)과 암소 비육 전환 지원(6,900만원)을 병행해, 한우 사육 구조 자체를 '질' 중심으로 재편한다.

전북대학교 글로컬 사업과 연계해 저탄소 유전형질 개발과 교육·연구(3억원)도 함께 추진하며, 향후 저탄소 축산 기반 마련으로까지 정책을 확장한다.

한편 전북은 이미 유전체 분석 기반 한우 개량 분야에서 전국을 선도하고 있다. 누적 5만7천 두의 유전체 데이터를 확보해 전국 최대 규모의 개량 기반을 구축했으며, 이를 토대로 '전북 고능력 한우' 8,973두를 선발·관리 중이다. 농림축산식품부의 전국 우수 암소 선발에서도 전북 한우가 가장 많이 선정된 바 있다.

도는 한우 개량을 비롯해 안정적 생산

기반 구축, 친환경 분뇨 처리, 유통 활성화 4대 추진축으로 설정하고, 고급육 출현율 제고, 스마트축산 확산, 저탄소·자원순환 체계 구축, 한우 수출 확대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에 대해 민선식 농생명축산산업국장은 "한우 개량은 시간이 필요한 분야이지만, 유전체 분석과 데이터 기반 정책을 통해 그 속도를 획기적으로 앞당길 수 있다"며 "전북형 한우 개량 모델을 중심으로 농가와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겨울철 대형 화재 예방 '총력' 전북도 위험물 사업장 합동점검
 전북도는 지난 6일 군산소방서 주관 합동으로 노홍석 도 행정부지사와 군산지역 대량 위험물 취급 사업장을 찾아 겨울철 화재 위험요인과 산업안전 관리 실태를 점검했다. <사진=전북자치도>

“전략작물직불 축소 중단해야” 김정기 의원, 농정 일관성 촉구

콩·가루쌀 축소 검토에 불안 확산
 작물 확대 취지와 정책 역행 지적
 “작목 전환, 투자큰만큼 예측 중요”



김정기 도의원

라는 것. 농림축산식품부는 해당 면적이 확정된 사항이 아니며, 향후 현장 수요와 여건을 반영해 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전북도의회 김정기 의원은 지난 6일 열린 전북자치도의회 제42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략작물직불제 지원 축소 검토 중단 및 정책 일관성 유지를 촉구했다.

전략작물직불제는 2023년 식량자급률 제고와 쌀 수급 구조 개선을 목표로 도입된 제도로, 만성적인 쌀 과잉 문제를 해소하고 밀·콩·가루쌀 등 수입 의존도가 높은 작물의 국내 생산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농정이다. 이에 따라 농민들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고 콩과 가루쌀 재배로의 작목 전환에 적극 나서왔다.

그러나 최근 2026년도 예산 추계 과정에서 콩과 가루쌀 지원 면적 축소가 논의되고, 대신 정책 효과가 불분명한 '수급조절용 벼'가 신규 지원 대상으로 검토되고 있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농민들의 불안이 커지고 있다. 이는 쌀 중심의 생산 구조에서 벗어나겠다는 당초 정책 취지와도 배치되는 흐름이

예상 추계 단계에서 지원 축소가 논의됐다는 사실만으로도 농민들은 극심한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작목 전환에는 막대한 초기 투자와 회복하기 어려운 매몰 비용이 수반되기 때문에 농업 분야에서 정책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 행정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또 “일관성 없는 농정은 농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경제적 손실을 떠안길 뿐 아니라, 향후 정부가 추진하는 어떠한 농정 과제에 대해서도 농민의 냉소와 불신을 불러올 게 뻔하다”면서 “당초 제도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일관된 정책을 유지함으로써 농민들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민주 도당, 지방선거 예비후보 495명 접수

2022년비 10명 늘어 '출마 열기'
 기초단체장 63명 신청 경쟁 확대
 시·군 기초의원 증가 두드러져

전체 485명 대비 10명이 증가했다. 기초단체장은 58명(2022년)에서 63명으로 5명 증가했다. 반면 광역의원은 비례를 포함해 107명(2022년)에서 96명으로 9명 감소, 상대적으로 출마 규모가 줄었다.

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황선철)은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실시한 예비후보자 자격심사 신청 공모 결과, 495명이 신청 접수했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선거별로는 기초단체장 63명(정수 14명), 광역의원 86명(정수 36명), 광역의원 비례 10명(정수 4명), 시 기초의원 197명(정수 130명), 시 기초의원 비례 21명(정수 16명), 군 기초의원 97명(정수 68명), 군 기초의원 비례 21명(정수 9명)이 각각 신청했다.

지난 2022년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가장 큰 변화는 기초의원 선거에서 나타났다. 시·군 기초의원(비례 포함) 신청자는 2022년 320명에서 이번 337명으로 17명 증가했다.

도당 예비후보자자격심사위원회는 공직후보자로서의 범죄경력 등 법적 도덕적 결격여부, 당원활동을 통한 정체성과 기여도, 정책수행능력 등을 기준으로 예외 없이 엄정한 자격심사를 실시하고 심사가 완료된 예비후보자에 대해 순차적으로 적격 여부를 통보할 예정이다.

/장정철 기자

전용태 “전북 교통약자 이동권 후퇴” 운영규정 재점검 요구

교통약자 이동지원 규정 개선 촉구
 장기요양 1~3등급만 이용 가능
 어르신 배제 “문턱 높은 타상행정”



전용태 도의원

서만으로 이용할 수 있었던 65세 이상 어르신들이, 개정된 규정에 따라 '장기요양 1~3등급' 판정자만 이용할 수 있게 되면서 4~5등급 등 경계선에 있는

어르신들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됐다는 것이다.

전 의원은 “실제로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려운데도 서류상 등급이 낮다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며, “이동수단이 없어 일자리를 포기하거나 병원 방문을 미루는 상황은 단순

한 불편을 넘어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또한 “차를 타기 위해 더 아프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 과정에서 어르신들의 자존감이 훼손되고 나아가 사회적 고립이 심화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전 의원은 까다로운 입증 절차로 인해 이용자 수가 줄어드는 것을 '수요 감소'로 오관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현장은 수요가 없어서가 아니라 감당하기 어려운 구조가 누적된 상황”이라며, 이용 문턱을 높여 수요를 강제로 억제하는 것은 전형적인 ‘타상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교통약자 지원계획 수립의 절차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국토교통부의 제4차 국가계획 기간이 2022년부터 시

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전북자치도는 관련 운영을 2023년 7월에야 착수해 2024년 6월에 완료했다.

전 의원은 “5년 단위 법정계획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기간이 한참 지난 뒤에야 수립되면서 2022년과 2023년 저상버스 도입 연차표가 공란으로 표시되는 등 ‘반쪽짜리 계획’으로 전략했다”고 지적하며, 정책의 체감 품질과 신뢰도를 떨어뜨린 ‘뒷방 행정’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 “수요 좁히기 아닌, 이동권 확대하는 현장 행정을 펼쳐야 한다”면서, 전북특별자치도에 ‘광역이동지원센터 운영 규정 즉각 재검토 및 독소조항 보완’, ‘사각지대에 놓인 65세 이상 어르신 및 교

통약자 실질적 마련’, ‘향후 제5차 지원 계획 수립 시 법정 시기와 절차의 엄격한 준수’ 등을 촉구했다.

전용태 의원은 “전북의 교통약자 정책이 수요를 해소하는 방향이 아닌, 수요

를 좁히는 방식으로 흘러가서는 안 된다”며 “이번을 계기로 전북의 교통약자 체감할 수 있는 이동권 보장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해 달라”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농업인의 정성이 담긴 최고의 '품질' 최상의 '먹거리'

익산시 농특산물 공동브랜드

탑마루

TOP MARU

이수진 “공직 기본부터 바로 세워야 전북 산다”

이 의원, 임시회 5분 자유발언서 “공정·책임 행정 강화” 주문 수의계약 공정운영 제도화 성과 비엔날레 조직위 방만 감사 촉구



이수진 도의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이수진 의원(국민의힘·기획행정위원회)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전북을 되살리기 위해서는 고통과 저항을 이겨내고 공직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공정과 책임의 리더십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3년여의 의정활동을 회고하며 정치적 유불리를 떠나 인사, 계약, 예산 집행 등 도정 전반에 걸쳐 ‘공정한 기준’과 ‘책임지는 행정’을 요구해 왔음을 강조했다. 이 의원은 먼저 인사의 공정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난 2024년 도정질문 등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 중국사무소 부소장 채용 과정의 절차적 문제와 허점을 끈질기게 파헤쳤다. 그 결과 해당 임용자의 자진 사퇴를 이끌어냈으며, 이후 감사위원회 재무감사를 통해 당시 제기했던 지적들이 사실로 확인되는 성과를 거뒀다. 또 부당한 수의계약 관행 타파를 위한 노력도 제시했다. 이 의원은 쟁머리 백서 용역 등에서 나타난 쪼개기 계약과 특정 업체 일감 몰아주기 등 불공정 관행을 질타한 데 그치지 않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 의원이 발의해 제정된 전북특별자치도 수의계약의 공정한 운영을 위한 조례는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 사례로, 올해 1월부터 본격 시행돼 제도적 안전장치가 작동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세계사에 전북 비엔날레 조직위원회의 느슨한 방만 운영 문제를 꼬집었다. 지난해에도 20억원이 넘는 도비가 투입됐음에도 수십 년간 감사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점을 지적, 오는 7월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이끌어냈다. 이 의원은 “2027년 292억 원 규모의 비엔날레관 준공을 앞둔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언급한 사례들은 분야는 달라도 결국 공정한 기준이 흔들렸고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보여주시기 전 시행령이 아니라, 공직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만이 기업 유치와 산업 전력을 성공시키고 도민의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이 의원은 “2027년 292억 원 규모의 비엔날레관 준공을 앞둔 만큼 철저한 감사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수진 의원은 “언급한 사례들은 분야는 달라도 결국 공정한 기준이 흔들렸고 결과에 책임지는 사람이 없었다는 공통점이 있다”며 “보여주시기 전 시행령이 아니라, 공직의 기본을 바로 세우는 일만이 기업 유치와 산업 전력을 성공시키고 도민의 민생을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김명지도의원 “전주 인구 급감 재정위기 신호”

2년내 인구 170만 붕괴 우려 전북 행정 지속가능성 경고등



김명지 도의원

전북도의회 기획행정위 김명지도의원(전주11)은 6일 열린 제42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 특별자치도 인구 감소가 장기간 지속되는 가운데 중추 도시인 전주에서 인구 급감이 확인되면서 도 재정과 행정 전반의 지속 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하며, “이는 단순한 숫자의 문제가 아니라 전북의 재정 규모, 행정 역량, 정책 지속 가능성 전반이 위협 단계에 진입했음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전북의 인구 감소는 2017년 현대중공업 군산조선소 가동 중단, 2018년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를 거치며 급격히 확대됐다. 대형 제조업 기반 붕괴 이후 인구 감소는 회복되지 못한 채 연간 1만 5천 명 안팎의 감소세가 고착화된 상태다. 2025년 기준 전북 인구는 172만 4,856명으로,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2027년 안에 170만 명 선 붕괴가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장정철 기자

또 인구 감소는 보통교부세 산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다시 재정 여력 축소와 정책 집행 능력 약화로 이어지는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전북은 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있으며 보통교부세 등 중앙정부 이전재원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에 대해 김명지 의원은 “인구는 더 이상 복지나 전주 정책의 부수적 대상이 아니라 전북 재정의 지속 가능성을 결정하는 핵심 전략 변수이며, 인구 감소를 방지한 채 재정 위기를 막는 것은 원인을 외면한 자기모순이다”라며, “이제는 인구 정책을 재정 전략의 중심으로 재정의하고, 보다 분명한 구조적인 대응 전략을 마련해야 할 시점이다”고 거듭 강조했다. /장정철 기자

전주 하계올림픽 유치 동의안 도의회 통과

본회의 가결...공식 지지 확보 정부 계획서 제출 필수 절차 완료 비용편익비 1.03 경제성 확보 긍정

전북도는 제424회 도의회 본회의에서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대회 유치 동의안이 가결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향후 정부 심의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경쟁 과정에서 전북도의 유치 추진에 중요한 동력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동의안 가결은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에 대회 개최 계획서를 제출하기 위한 필수 절차로 전주 올림픽 유치 추진에 대한 도의회의 공식적인 지지와 공감대를 확인한 것이다. 도는 그동안 올림픽 유치를 국가 균형발전과 지역 도약의 핵심 전략으로 설정하고, 문화체육관광부를 비롯한 관계 부처, 대한체육회 등 유관 기관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유치 전략을 마련해 왔다. 특히 한국스포츠과학원이 수행한 사

본회의 가결...공식 지지 확보 정부 계획서 제출 필수 절차 완료 비용편익비 1.03 경제성 확보 긍정

전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 타당성을 나타내는 비용편익비(B/C)가 1.03으로 분석돼 사업의 경제성이 입증됐다. 이는 올림픽 개최에 따른 경제적 효과가 투입 비용을 상회한다는 것을 뜻한다. 전북도는 앞으로 문화체육관광부와 기획예산처 등 중앙부처의 정부 심의를 철저히 준비할 방침이다. 올림픽 유치의 타당성과 당위성을 더욱 구체화하고 재정 건전성과 지속가능성, 지역 레거시(유산) 창출 방안 등을 중심으로 정부 심의 대응에 만전을 기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이번 의회 동의를 발판 삼아 중앙정부와의 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고, 국제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집중한다. 도 관계자는 “이번 동의안 가결은 전주 하계올림픽·패럴림픽 유치를 향한 도민과 도의회의 강한 의지를 다시 한 번 확인한 의미 있는 성과다”며 “앞으로도 정부 심의와 국제 무대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전방위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안호영 “세계 투자 300조 중 전북에 100조 와야”

안 의원 지방투자 재배분 촉구 영호남·호남 내부 불균형 격차 해소



안호영 의원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6일 “세계가 약속한 지방투자 300조 원 중 지역 격차 해소 차원에서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명확히 배정돼야 한다”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날 성명서를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지방 주도 성장이라는 분명한 방향을 제시했고, 이에 기업들이 화답해 향후 5년간 비수도권에 300조 원을 투자하겠다고 밝힌 것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넘어 ‘5극 3특’ 균형발전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정부 선언이 구체적 행동으로 이어진 사례”라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어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약속이 선언에 그치지 않고, 지방 주도 성장을 실제로 구현하는 배분으로 이어지느냐”라며 “영호남 간 불균형과 호남 내부의 지역 격차를 바로잡지 못한다면 이번 투자의 의미는 반감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안 의원은 “호남 전체에서는 이번만큼은 다르게 배분돼야 한다는 요구가 분명히 제기되고 있다”며 “민행배 의원이 300조 지역 투자 중 200조를 호남에 집중 배정해야 한다고 제안한 취지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호남 내부에서도 가장 오

랫동안 소외돼 온 전북특별자치도에 100조 원 규모의 투자가 분명히 배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 의원은 “전북은 수십 년간 SOC, 산업 입지, 공공기관 이전, 연구·교육 인프라에서 늘 후순위에 머물러 왔다”며 “그 결과 인구 감소와 청년 유출, 취약한 산업 구조가 누적되며 전국에서 유일한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충격적인 현실로 나타났다”고 말했다. 이어 “전북 100조 투자는 특혜가 아니라, 수십 년간 기울어졌던 운동장을 바로 세우는 일”이라며 “정책적 기준 없이 시장 논리에만 맡길 경우 투자는 다시 영남권과 전남·광주권에 편중될 가능성이 크고, 전북은 또다시 주변부로 밀려날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안 의원은 “이미 전북 국회의원들과의 기자회견을 통해 전북이 5극과 대등한 수준의 국가적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히며 최소 10조 원 규모의 국비 패키지를 요구했다”며 “이제는 그 국비 패키지 위에 100조 원 규모의 민간 투자를 결합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전북도 RE100 협력체계 확대...재생에너지 전환 가속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1차 운영협의회 전북TP서 개최 신규 13곳 가입...102개사 참여

전북도는 지난 6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2026년 제1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북도의 RE100 확산과 재생에너지 기반 산업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얼라이언스 협력체계 강화를 위해 도와 유관기관, 에너지·산업 분야 관계자들이 참석해 연도별 추진상황 점검, 운영체계 정비, 향후 협력과제 발굴 등을 논의했다. 회의는 신규 참여기관 13개사에 대한 가입서 전달식으로 시작됐으며, 이번 참여 확대로 얼라이언스 참여기관은 총 102개사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RE100 확산과 전북 현안 해결을 위한 정보 공유와 협력 논의의 장이 한층 강화됐다. 주요 안건으로는 ▲2025년 추진현황



전북도는 6일 전북테크노파크에서 ‘RE100 에너지솔루션 얼라이언스’ 2026년 제1차 운영협의회를 개최했다. <사진=전북도> 강해 보다 효과적·효율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특히 과학기술위원회와 연계한 신규 과제 도출을 통해 발굴된 과제를 다각도로 검토하고 인증 절차를 마련함으로써, 신뢰성 있는 과제기획보고서를 도출해 국가예산 확보로 연계한다는 복안이다. /장정철 기자

YS차남 김현철, 장동혁대표에 “당장 아버님 사진 떼라”

김영삼 전 대통령 차남 김현철 김영삼 대통령기념재단 이사장은 5일 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이미 과거 군사 정권 후예라고 자처하는 국민의힘을 보면서 더 이상 그곳에 있어야 할 이유가 없는 김영삼대통령의 사진을 당장 내려 주기 바란다”고 직격했다. 김 이사장은 이날 SNS를 통해 “국민의힘에 전두환 사진 걸라는 극우 유튜브의 주문에 무응답으로 호응하는 장동혁 지도부”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최근 장동혁 대표의 멘토로 알려진 극우 유튜브 고성국씨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당사에)사진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이사장은 “YS정신을 내다버린 수구집단으로 변질된 국힘에 그 분의 사진이 걸려 있을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세 분의 대통령을 보유했던 보수정당이 드디어 민주화를 버리고 망조로 가고 있다”고 장 대표를 거듭 비판했다. /서울=김영목기자

겨울철 화재예방

겨울철 3대 전기제품 사용 안전수칙

전기장판

▶ 전기장판은 이불겹겹이 덮은 채로 사용금지

전기히터

▶ 난방기구 주위에 인화물질 두지 않기

전기열선

▶ 사용하지 않을때 전원코드 뽑기

전주시 공공시설 수목 관리 사전협의 도입

공공시설 수목 정비 기준 수립 수목관리 대상 확대 수목 건강까지 관리 계획

전주시가 가로수와 녹지, 산림, 공원 수목, 공공시설 수목 관리를 위해 사전협의 제도를 도입하는 등 수목 관리 기준을 정비한다. 시는 도시 수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공공시설 수목까지 포함하는 기

준을 마련해 부서 간 협업 체계를 강화할 계획이다. 가로수·녹지·산림·공원은 관련 법령과 기준에 따라 관리된 반면, 공공시설 수목의 경우 사업 여건에 따라 관리 방식이 달라지는 한계가 있어 이를 해소하기 위함이다. 앞으로 시는 공공시설 수목에 대한 확실한 정비 기준을 정함으로써 과도한 가지치기와 잘못된 이식으로 수목 생육에 피해를 유발하는 원인을 예방해 수목을

건강하게 관리할 계획이다. 또 가로수 관련 협의·승인 시에도 관련 기준·매뉴얼을 협의 의견에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등 명확하고 세밀함을 더할 예정이다. 아울러 시는 수목 정비시 약전정을 원칙으로 하되, 수목의 생육·미관 및 차량의 통행, 시설물·보행자 안전 등을 위해 부득이 강전정이 필요한 경우 수목의 생육·미관을 최우선으로 강도를 조정해 제한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시는 시민들의 이해와 공감에 필요한 이슈가 예상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추진 전 사업별 시민참여단과 간담회 등을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청취해 시민들과 눈높이를 맞추어나가기로 했다. 이를 통해 수목 관리 정책에 대한 시민의 참여를 높이고, 의견을 최대한 반영시켜 도시녹지 정책에 대한 시민 신뢰를 쌓아간다는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가 '수어 영상물' 제작이 확대된다

전주시수어 영상제작 장벽 없는 행정 실현

“들리지 않아도 보여요”

전주시가 '수어 영상물' 제작이 확대된다. 시는 청각장애인의 정보 격차 해소 및 사회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이달부터 올 연말까지 주요 행사와 재난 상황, 복지·문화 정책 등을 담은 수어 영상물 총 60편을 제작·배포할 계획이다. 사업은 '전주시 한국수화언어 활성화 지원 조례'에 근거해 추진된다. '수어 영상물'은 시각적 매체인 수어와 자막을 결합해 농인(聾人)이 쉽고 정확하게 정보를 습득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핵심이다. 제작된 영상은 △주요 행사와 재난·사고 전달하는 '시정소식(40편)' △정책, 복지, 건강, 문화 등 실생활에 유용한 '생활정보(20편)'의 크게 두 가지 분야로 구성된다. 매주 및 격주 단위로 제작될 예정이다. 시는 제작된 영상을 전주시 누리집에 상시 게재하고 개인정보 활용에 동의한 청각장애인들에게는 영상 링크(URL)를 포함한 문자 안내 서비스를 제공해 접근성을 극대화할 방침이다.

/정소민 기자

전주시의회 2026 '청소년의회' 본격 운영

3월 13일까지 관내 초·중·고 학생 참가 접수

전주시의회가 2026년 '청소년의회'를 운영한다. 청소년의회는 2007년부터 운영해 온 지방의회 체험 프로그램이다. 2026 청소년의회는 청소년들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직접 체험하며 지방자치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높일 수 있도록 마련된다. 관련해 학생들은 의회를 방문해 분회 의장 등 주요 시설을 견학하고 3분 자유 발언 등 모의의회 운영, 지역구 의원과의



만남을 통해 지방의회 역할과 기능을 체험하는 현장중심교육이다. 특히 올해부터는 청소년의회 관련 조례에 따라 수송 차량 지원과 학생들이 제안한 의견을 실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운영할 계획이다. 청소년의회 참여 대상은 관내 초등학교 4~6학년과 중·고등학교 재학생으로, 학급 단위로 신청·참여할 수 있다. 정기신청은 9일부터 내달 13일까지며 수시접수도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전주시의회 의회사무국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주동물원 휴게음식점 9일부터 정상 운영

시, 공유재산 장기공실 해소로 관람객 편의 제공 및 공유재산 활용도 제고

전주동물원 내 휴게음식점이 9일부터 정상 운영된다. 전주시는 지난 2023년 운영이 중단돼 공실 상태에 놓여 있던 전주동물원 내 휴

게음식점에 대한 사용·수익 허가 절차를 완료하고 정상 운영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동물원 방문객에게 휴식 및 식음 편의시설을 제공하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것으로 사용 허가 대상 시설은 전주동물원 내부에 위치한 휴게음식점이다.

휴게음식점 면적은 356㎡이며 사용 기간은 오는 9일부터 2028년 2월 8일까지 2년간이다. 이를 위해 시는 지난해 12월 사용허가 계획을 수립한 뒤 사용·수익 허가를 위한 공개 입찰을 거쳐 지난해 12월 30일 계약 체결을 완료했다. 모든 행정절차가 마무리되는 대로 휴

게소 운영을 개시할 예정이다. 시는 전주동물원 주요 편의시설인 만큼 관람객 만족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는 앞으로도 동물원 효율적 운영을 통해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행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해 나갈 계획이다.

/정소민 기자

전북 경찰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 추진

소통 위주 교통관리 우선

전북경찰청 '설 연휴 특별교통관리'가 추진된다. 경찰청은 오는 설 연휴 기간 중 하루평균 교통량은 33.6만대로 추정하며 관련해 교통대책안을 세웠다. 경찰청은 이번 명절 혼잡 시간대를 2월 15일 오전과 2월 17일 오후 시간대로 곳곳 지·정체를 예상했다. 이에 따라 1단계로 2월 7일부터 2월 12일까지 사전 취약구간을 점검하며 전통시장·대형마트 및 역·터미널 등 혼잡장소 관리에 전념한다.



2단계 2월 13일부터 2월 18일까지는 교통혼잡상황실을 운영하며 하루평균 경력 222명을 투입하고 장비 95대를 동원해 귀성·귀경 기간 원활한 교통소통에 주력할 계획이다. 여기에 고속도로에서는 경찰 헬기와 암행순찰차를 활용해 난폭운전 및 갓길통행 등 암행 순찰자를 단속할 방침이다. 도내 주요 교차로 및 병목 구간에서 교차로 꼬리물기, 끼어들기 등 무질서 행위를 차단하는 등 소통 위주 교통관리를 펼친다.

/김영태 기자

한국건강관리협회 20대 대장암 발생...5년 사이 81.6% 급증

2030세대 대장암·갑상선암 선제적 관리 중요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전북)는 최근 암이 20~30대 젊은 연령대에서 꾸준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에는 2024년 기준 20~30대 갑상선암 환자는 6만1241명으로 2020년 대비 14.0% 증가세를 보였고 대장암 환자 수는 6599명을 기록하며 5년 사이 무려 81.6% 급증으로 확인됐다. 대장암 증가세는 남녀 20대에서 뚜렷하게 나타났다. 남성 20대 환자는 2020년 대비 114.5%, 여성 20대는 92.6%로 증가했고 30대에서도 남녀 각각 84.0%, 70.4% 높은 증가율을 기록했다. 대장암 증가 주요 원인으로 고열량·고지방 위주 서구화된 식단과 달고 짠 음식 선호 트렌드 등이 지적되고 있다. 아울러 정제 탄수화물과 가공육 섭취 증가에 따른 비만을 상승 또한 대사 질환 유병률을 높여 암 발생 주요원인으로 본



석했다. 갑상선암도 젊은 층을 중심으로 가파른 증가세다. 20대 남성의 경우 2020년 대비 2024년 환자 수가 35.0% 증가하며 80세 이상 연령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대 여성도 21.9%로 70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상

승률을 기록 중이다. 갑상선암은 타 암종에 비해 생존율이 높은 암이지만, 젊은 층에서 발병할 경우 림프절 전이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특히 수술 후 장기적인 호르몬 관리를 해야 한다는 점에서 주의가 필요한 질환이다.

갑상선암은 아직 명확한 발병 원인이 규명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고갈로리 위주 식습관이 발병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국가 암 검진 체계상 대장암 검진은 50세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2030세대는 암 검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검진센터(전북)는 “젊은 층 암 예방을 위해 생활 습관 교정과 선제적 검진이 매우 중요하다”고 밝혔다. 대장암 예방 위해 식단 관리를 내세웠다. 식이섬유가 풍부한 채소와 통곡물 중심의 식단을 유지하고 햄·소시지 등 가공육 섭취를 줄여야 하며 규칙적인 유산소 운동으로 적정 체중을 유지해 암 발생의 원인이 되는 대사 증후군 위험을 낮춰야 한다. 특히 “가족력이 있거나 원인 불명의 배변 습관 변화, 급격한 체중 감소가 지속된다면 권고 연령 이전이라도 정밀 검사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영태 기자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제15회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다

전주완산소방서 어린이 대상 '맞춤형 소방안전교육' 실시

전주완산소방서(서장 박덕규)는 '제15회 전북특별자치도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참가팀을 모집한다. 이번 경연대회는 심정지 환자 발생 시 신속한 초기 대응이 생존율을 높이는 만큼, 도민들은 심폐소생술 중요성을 체득하고 생명존중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정지 환자 발생시 시간이 흐를수록 생존 가능성이 급격히 낮아져 현장 목격자 신속한 심폐소생술 시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소방서는 이번 대회를 통해 단순 교육을 넘어 체험형·참여형 안전문화 확산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경연대회는 오는 4월 3일 전북119

안전체험관에서 개최되지만 10세 이상 도민이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참가팀은 3명 이상 8명 이하로 구성해 심정지 상황을 가정한 퍼포먼스형 심폐소생술을 8분 이내 연극 형식으로 표현하게 된다. 대회는 대상 1팀과 최우수상 1팀에 전북특별자치도지사상이 수여되며, 대상 수상팀은 5월 개최 예정인 전국 일반인 심폐소생술 경연대회 출전 기회가 주어진다. 또 금상과 은상 수상팀에도 기관장이 수여될 예정이다. 참가 문의는 전주완산소방서 예방안전팀으로 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TP '첨단바이오부스트업' 기업지원 통합공고

28일까지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 맞춤형 지원·자금지원 총력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 위한 대규모 기업지원에 나선다.

이에 전북TP는 '전북 첨단바이오 부스트업 플랫폼 구축 기업지원 바우처 서비스 통합 공고'하며 도내 바이오 기업의 기술 고도화와 글로벌 확산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바우처 서비스는 한국화학연구원 부설 국가독성과학연구소와 함께 진행한다.

지원사업은 전북 내 첨단바이오 기업 성장 주기와 필요에 따라 세가지 맞춤형 트랙으로 운영되며 총 15개 내·외의 과제를 선정해 지원한다.

스타트업 지원 : 창업 7년 이내 기업 아이디어 실제 비즈니스 모델 구체화. (2건, 과제당 1억원)

△실증 스케일업 지원 : 임상 시험

글로벌 인허가 시장 진출 검증 과정 지원. (6건, 과제당 1.1억원)

△링킹랩 공동연구 지원 : 도내 정출연·대학·혁신기관 기업의 기술적 난제 공동연구 지원(7건, 과제당 0.85억원)

특히 링킹랩(Linking Lab)은 기업이 단독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기술적 문제를 정출연 및 대학의 인프라(전문 인력과 연구장비)를 활용하는 '개방형 실험실' 형태로 운영돼 큰 실효성이 기대된다.

지원분야는 정부가 지정한 4대 첨단 바이오 국가전략기술 분야인 △합성생물학 △유전자·세포 치료 △감염병 백신·치료 △디지털 헬스 데이터 관련 기업이다.

신청자격은 전북자치도 내 소재한 기업으로 전주·익산·정읍시에 투자를 확약한 기업도 선정 시 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은 오는 20일부터 내달 6일 오후 4시까지 전북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http://rnd.jbtp.or.kr>)을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전북특별자치도와 (재)전북테크노파크는 지역 첨단바이오 산업 육성 위한 대규모 기업지원에 나선다.

전문가 평가를 거쳐 3월 말 최종 지원 대상을 확정할 예정이다.

'첨단바이오부스트업' 통합공고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전략기술 지역혁신엔진' 사업 일환으로 마련됐다. /김영태 기자

전기안전공사-전력공사 전기안전 신기술 기술교류회

에너지전환 시대 실효성 공동연구 추진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안전연구원-한국전력공사 전력연구원은 전기안전 신기술 발굴 및 전기안전문화 확산 위한 기술교류회를 가졌다.

기술교류회 주요 내용으로는 △GFM(Grid Forming) 활용기술 △ESS 안전관리 고도화 △분산·유류자원 안전관리 플랫폼 기술 개발 등 기술 향상 발표와 함께 토론이 진행됐다.

특히 재생에너지 확대와 분산형 전원 증가 안정성과 전기안전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한 공동 연구 협력 분야에 대

해서도 강도 있는 논의가 펼쳐졌다. 공사는 이번 기술교류회를 발판으로 한국전력공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전기안전 확보와 안전 문화 확산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남화영 사장은 "전기설비 안전 확보는 에너지전환 시대의 핵심 기반으로서 이

번 교류회를 통해 현장 수요에 기반한 실효성 높은 공동 연구과제를 발굴하고 전기안전 기술 고도화를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GFM(Grid Forming)란 인버터가 전력 계통 전압과 주파수를 스스로 생성 '전력망 역할' 제어 방식을 의미한다. /김영태 기자

경진원, 사회적경제기업 오프라인 판로 확대 나서

'부산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 추진

전북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원장 윤여봉, 이하 경진원)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오프라인 판로 확대를 위해 '부산국제식품 박람회' 참가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

경진원은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을 대상으로 부산국제식품박람회 참가를

지원해, 우수 식·음료 제품의 홍보 및 신규 판로 개척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을 통해 선정된 기업은 부산국제식품박람회 개별 부스 참가를 지원받게 되며, 현장 전시·홍보를 통해 바이어 상담 및 소비자 직접 접촉 기회를 제공받는다.

경진원은 참여 기업을 대상으로 부스 임차비용 및 전시 운영 등을 지원해, 기업의 참가 부담을 완화하고 박람회 성과를 극대화할 예정이다.

특히 박람회 현장에서는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의 우수한 식·음료 제품을 집중 홍보하고, 유통사·바이어와의 상담을 통해 실질적인 거래 연계가 이뤄질 수 있어 기대를 모으고 있다.

경진원 윤여봉 원장은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 도내 사회적경제기업이 시장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룰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모집기간은 오늘부터 오는 27일까

지이며, 이메일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JBOK)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경진원(www.jbba.kr) 또는 전북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혁신타운 홈페이지(www.jbse.or.kr), 전북특별자치도중소기업종합지원시스템 홈페이지(www.jbok.kr)를 통해 확인하거나 공동체정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설 맞이 시니어클럽 생산품 전시·판매행사

어르신 일자리 생산품 판로 확대지역 소비 촉진

전북특별자치도가 설 명절을 앞두고 어르신 일자리로 만든 생산품을 한자리에 선보였다.

도는 지난 6일 도청 1층 로비에서 한국 시니어클럽협회 전북지회와 함께 '설맞이 시니어클럽 생산품 전시·판매행사'

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도내 시니어클럽 공동체사업단에서 생산한 제품을 도민에게 직접 소개해 어르신들의 안정적인 소득 창출을 돕고, 지역 소비를 촉진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전주, 전주서원, 전주효자, 군산, 익산, 완주, 진안, 장수, 임실 등 도내 9개 시니어클럽이 참여했다. 현장에는 총 43종의 생산품이 전시·판매됐으며, 설 명절 선물과 가정용으로 활용

도가 높은 먹거리 위주로 구성됐다. 주요 품목은 돼지등갈비, 오곡·청국장 세트, 김·부각류, 누룽지, 참·들기름 세트, 전통청, 식혜 등으로, 어르신들이 직접 생산과 가공에 참여해 만든 제품들이다.

지역 농산물을 활용해 안전성과 품질을 동시에 확보한 점도 특징이다. 행사는 현장 판매와 함께 유선 및 이메일 주문 방식도 병행해, 행사 이후에도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했다.

방상윤 전북자치도 복지여성보건의료장은 "이번 행사는 어르신들께는 안정적인 소득 기회를, 도민들께는 믿을 수 있는 명절 먹거리를 합리적인 가격에 만날 수 있는 자리"라며, "앞으로도 시니어클럽 생산품의 경쟁력 강화와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해 지속 가능한 노인일자리 확대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전북도 '외국인 근로자 유입 지역경제' 활력

2025년까지 전국 최대 857명 유치 결실

전북특별자치도가 추진 중인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이 인구감소지역 기업의 인력난 해소와 외국인 정주인구 확대에 마중물 역할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은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다. 인구감소지역에 거주하며 취업을 희망하는 외국인 유학생과 비숙련 근로자에게 도시사 추천을 통해 장기체류 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기존 비자와 달리 체류기간 상한이 없고, 배우자와 미성년

자녀의 동반 거주 및 배우자 취업이 허용된다.

이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는 가족과 함께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고, 기업은 숙련기능인력을 장기 확보할 수 있게 된다.

사업은 법무부 시범사업으로 시작됐으나, 민선 8기 전북자치도가 진기업정책의 일환으로 중점 추진하며 기업과 외국인 근로자 양측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있다. 도는 지난 2022년 7월 민선 8기 출범 직후 열린 대통령-시도지사 간담회에서 지역 수요에 맞는 외국인 비자발급 권한을 전북 인구의 10%까지 지자체에 부여해 달라고 중앙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전북은 2023년 지역특화형비자(우수인재) 시범 사업을 첫 해 인구조소지역 6개 시군에서 시작해 2024년 10개 시군으로 확대했다. 지난해부터는 숙련기능인력(E-7-4R) 추천제도 익산시까지 포함해 처음 시행했다. 그 결과 2023년부터 2025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우수인재 857명을 유치했다. 숙련기능인력 비자도 초기 배정 160명을 조기에 달성한 뒤 추가로 320명을 확보해 총 460명 모집을 완료했다.

이런 성과의 배경에는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이 있다. 도는 시군(정읍, 김제, 순창, 고창, 부안) 및 대학 등과 협력해

외국인과 기업을 연결하는 취업박람회를 개최했다. 우석대, 전주대, 비전대 등 도내 8개 대학을 순회하며 유학생 대상 설명회도 진행했다. 기업 현장을 직접 방문해 제도를 안내하고 대상자를 발굴한 것이 모집 실적 향상에 기여했다.

정주인구 확대 효과도 비추며 비자 전환자 외에도 동반가족 808명이 도내에 거주하고 있다.

도는 비자 전환자에게 정착지원금 30만원을 지급하고, 전북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와 13개 시군 외국인지원센터를 통해 노무상담, 통역, 한국어 교육, 산업안전교육 등 정착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지난 6일 아침 전북농협 주차장에 수많은 농협인들이 북적였다. 이유는 생명나눔 헌혈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농협전북본부 생명 나눔 출동!"

헌혈캠페인 동창

지난 6일 아침 전북농협 주차장에 수많은 농협인들이 북적였다. 이유는 생명 나눔 헌혈캠페인에 동참하기 위해서다.

헌혈캠페인 관계자는 "전국적인 혈액 수급난 극복을 위해 너도나도 참여하는 농협인 발걸음에 감사하다"며 "수해년 혈액캠페인을 진행해왔지만 끝이 보이지않는 농협인 헌혈줄에 무척 감동받았다"고 박수를 보냈다.

이날 헌혈캠페인에는 농협전북본부 내 중앙회·경제지주·NH농협은행·농협생명·농협 손해 등 계열사 임직원 등이 참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성훈 본부장은 "헌혈캠페인을 시작으로 임직원들이 정기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헌혈문화가 정착되고 전북혈액원에도 보탬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적극적으로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정소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일 전주시 신중양시장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신중양시장 농식품 원산지 표시 정착 캠페인

소비자 신뢰 강화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전북지원과 전북특별자치도 도민안전실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 6일 전주시 신중양시장에서 농식품 원산지 표시 합동 캠페인을 실시했다.

캠페인은 전통시장 원산지 표시 정착을 위해 마련됐다. 주요 활동으로는 △시장 상인들에게 올바른 원산지 표시 방법 안내 △소비자에게 원산지 확인 요령 및 식별 정보 홍보 △홍보용품 배부 및 현장 상담 진행 △제수용품(소·돼지고기, 나물류, 제수용품, 선물용품 등 중점 계도 및 홍보) 등이다.

앞으로도 전북농관원과 전북특별자치도는 전통시장 및 대형유통업체를 대상으로 홍보 활동과 합동 단속을 강화해 농식품 부정유통 근절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김영태 기자

농식품부-식품기업, 명절 맞이 대규모 할인 추진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송미령)는 2월 내내 대대적인 설 맞이 민족대명절 국민 장바구니 부담을 줄이기 위해 2월간 내내 할인행사를 추진한다.

농식품부 할인 행사는 국민 모두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된다.

할인 행사 참여 기업은 식품기업 15개사가 협력해 함께한다.

특히 국민 소비가 많은 △라면 △식용유 △밀가루 △두부 △조미료 △유제품 등 4957개 품목을 최대 75%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다.

하지만 판매처별 행사 내용이나 할인율은 상이할 수 있다.

행사는 윤·오프라인 유통채널 동시 진행돼 소비자들이 물가 인하 효과를 보다 직접적으로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동안 농식품부는 식품업계와 원가 부담 완화 및 물가안정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왔다.

농식품부의 할인 행사는 국민들이 실제 혜택으로 체감하도록 연결했다는 데 의의가 크다.

/정소민 기자

<경제 알림> 오는 27일까지 '소비자피해 집중상담 창구' 운영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북지회 소비자정보센터-전북 소비자생활센터는 설 명절 소비자신속한 피해 구제 '설 명절 소비자피해 집중상담 창구'를 오는 27일까지 운영한다.

설 맞이 창구에는 소비자전문상담원이 상주하며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상담을 진행한다. 이외 인터넷 상담 www.sobjiacb.or.kr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전북교육청, 초·중 새내기 학부모교육 운영

“학부모 불안 줄이고 자녀 학교생활 적응 돕는데 보탬 될 것”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2026학년도 자녀가 초·중학교에 입학하는 학부모를 대상으로 오는 20일부터 '2026학년도 초·중학교 새내기 학부모교육'을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 교육은 초·중학교 입학 앞둔 자녀의 학교생활을 미리 이해하고 보다 안정적으로 준비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됐다.

예비 학부모교육은 예산 회계연도 운영 일정에 따라 매년 12월에 실시해 왔으나 입학 앞둔 실제 준비시기와 맞지 않는다는 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학년 진학 시기에 맞춘

2월로 교육 운영 시기를 조정했다.

주요 내용은 △초·중학교 교육과정 및 학교생활 안내 △자녀 이해 및 발달단계별 특징 △학부모의 역할과 자녀 교육 방법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교육활동 보충 등이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를 구분해 학령 단계에 맞춘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학교 교육과정과 학교생활 전반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는 동시에 자녀 발달단계에 맞는 학부모 역할을 안내하는데 초점을 둘 계획이다.

학부모교육은 오는 20일 군산을 시작으로 도내 5개 지역에서 차례로 진행된다.

교육 참여를 희망하는 학부모는 13일까지 사전접수하거나 당일 현장 신청을 하면 된다.



지역별 교육 일정과 장소는 전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전북교육청 학부모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임경진 교육협력과장은 “자녀가 입학 앞둔 시기에는 학교생활을 미리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이 학부모의 불안은 줄이고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초등 6학년 진로 밀착지원

‘나·로 새:로 중학교 가는 길’ 보급…진로연계교육 강화

전북교육청 초등학교 6학년을 대상으로 진로연계교육을 강화해 밀착지원에 나선다.

전북교육청은 초등학교 대상 진로연계교육 자료인 ‘나·로(路) 새:로(路) 중학교 가는 길’을 보급한다고 5일 밝혔다.

‘나·로(路) 새:로(路) 중학교 가는 길’ 교육 자료는 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이 새로운 환경 속에서 자신의 성장을 성찰하며 새출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할 목적으로 개발됐다.

특히 자료는 교사용과 학생용으로 나눠 제작됐으며 학교 현장에서 수업과 활동에 바로 활용될 수 있도록 개발됐다.

학교 현장의 접근성과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자료집 형태뿐만 아니라 웹진 형태로 도교육청 누리집에도 탑재했다.

전북교육청은 이 자료가 학생들에게는 중학교 진학에 대한 불안감을 줄이고 자기에 대한 이해도와 진로 역량을 키우는 계기가 되고, 교사에게는 진로연계교육을 체계적으로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혜민 기자

전북교육청, 생태전환교육 강화로 ‘환경시민’ 육성

지속가능한 교육 기반 구축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이 학교 환경교육을 체계화하고, 생태전환교육을 강화한다.

전북교육청은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해 능동적으로 실천하는 환경시민 육성’을 2026년 학교 환경교육 목표로 삼아 교육과정 기반의 환경교육을 추진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특히 기후환경·생태전환교육이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학교 현장에서의 실천력을 높이고 지속가능한 환경교육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 연계 학교환경교육 강화 △환경교육 교원 역량 강화 △탄소중립 실천 학생 활동 지원

△유관기관 연계 실천 프로그램 강화를 4대 중점과제로 선정하고, 체계적인 환경교육을 3월 새학기부터 본격 운영한다.

신규 사업으로는 지역 자원을 활용한 학교 특색 환경교육 프로그램 운영, 생태전환교육지원단 조직·운영, 생태전환교육 수업자료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

그리고 탄소중립 실천 중점학교 운영, 교원 생태전환교육 전문성 강화 연수, 지역사회와 연계한 학교 환경교육 활동 및 환경교육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강화한다.

또한 생태전환교육 일반화를 위해 초등 2개교를 생태전환교육 모델 개발 연구학교로 지정해 학교 실정에 맞는 교수 학습 방법을 마련하고, 실천



자료를 개발해 학교 환경교육 활성화에 도모한다. 정미정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생태전환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보다 내실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적·교육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혜민 기자



군산대-뮌헨공과대학교, 공동연구 마무리

국립군산대학교 대학원 기계공학과 ‘ANSL’팀(지도교수 김선영, 김화석, 엄지현)이 독일 뮌헨공과대학교(TUM) 모바일 로보틱스 랩과 함께 국제 공동연구 및 학술 교류를 마무리했다.

공동연구는 농경지나 험지처럼 형태가 일정하지 않은 환경에서도 자율 이동 및 학술 교류를 마무리했다.

공동연구에서는 로봇이 스스로 주변 지형 인식 후 이동 가능 여부를 판단하는 기술에 중점을 뒀다.

이울러 연구팀은 지형의 형태 변화를 연속적으로 분석하는 새로운 접근 방법을 함께 검토했다.

특히 ANSL팀 카메라 활용한 기준 좌표 변환 방법을 적용해 센서 설치 위치나 각도에 따른 오차를 줄인 후 지면의 굴곡이나 형태 변화와 같은 특징이 분석됐다.

이에 ANSL팀은 로봇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방안을 제

시했다.

독일 TUM 모바일 로보틱스 랩은 자율 주행 로봇 분야에서 감성을 가진 연구기관으로, 다양한 센서를 활용한 위치 인식 기술과 정밀 지도 생성, 환경 인식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기술 교류를 진행했다.

양 기관은 지형 정보를 활용한 주행 판단 기술이 향후 경로 설정과 주행 제어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논의했다.

ANSL팀은 TUM의 연구 시설을 직접 방문해 실제 로봇 장비와 실험 환경을 살펴보고 비정형 환경에서의 주행 실험 설계 방법과 데이터 수집 전략에 대해 의견을 나눴고 이와 관련해 이론 연구와 실제 실험을 연계한 국제 공동연구 가능성을 확인했다.

국립군산대는 해외 우수 연구기관과 협력하여 국제 공동연구와 학술 교류를 지원하고 국제 사회 산업 현장 기여 실질적 성과를 창출해 글로벌 리더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마련하고 있다. /김영태 기자

전북문화관광재단 ‘치유 문화예술교육’ 효과 검증

전북특별자치도문화관광재단(대표이사 이경윤)은 남원의료원과 협력해 추진한 ‘치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의 효과가 객관적으로 검증됐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치유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 오롯이, 예술로 치유’는 심리적·정서적 회복과 사회적 관계 회복이 필요한 도민에게, 문화예술을 매개로 정서적 안정을 돕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재단은 기존 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과는 달리, ‘정서적 회복’이라는 특성을 반영한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이를 객관적으로 증명하고자 남원의료원과 협업체 검증에 나섰다.

이번 효과성 검증은 참여자 대상 사전·사후 스트레스 지수를 맥파 검사를 통해 측정·분석하는 방식으로 추진됐다. 맥파 검사란 손끝 모세혈관의 맥파 분석을 통해 심박동을 측정, 혈액순환

건강지수 및 누적된 스트레스 정도를 파악할 수 있는 검사이다.

분석 결과, 전체 참여자의 스트레스 지수는 교육 전 대비 교육 후 평균 10.2%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재단은 이번 성과를 통해 치유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의 정서 상태에 실질적인 긍정 효과를 미친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확인했으며, 향후 사업의 확대와 지속적인 추진을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

이경윤 대표이사는 “이번 효과성 검증은 치유 문화예술교육이 참여자의 정서적 회복에 실제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객관적 지표로 확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며, “참여자의 정서적 변화가 실제로 확인된 만큼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치유 문화예술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정철 기자

마음담백, 지구를 아껴요 과대 포장 NO!

진정한 가치는 포장에 아닌 정성입니다



불필요한 포장은 쓰레기만 남깁니다



간소한 포장으로 환경보호에 동참해 주세요



정읍시, 왕술밭 공동체정원 텃밭 분양...20일까지 접수

정읍시는 오늘부터 20일까지 시민들이 직접 농작물을 재배하며 공동체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왕술밭 공동체 정원' 텃밭 참여자를 모집한다.

왕술밭 공동체 정원은 도시민들이 친환경 농업을 체험하고 건강한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조성된 도시 속 텃밭이다. 이번 분양 규모는 총 73개소로 일반 시민 대상 61개소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배려 텃밭' 12개소로 나뉘어 공급된다.

신청 자격은 정읍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이며 세대당 1개소만 신청할 수 있다. 희망자는 기간 내에 주소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최종 선정된 시민은 연간 2만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면 오는 3월 3일부터 12월 11일까지 텃밭을 이용할 수 있다. 이학수 시장은 "참여하는 시민들이 이웃과 함께 땅 흘리며 따뜻한 공동체 문화를 경험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정현울 익산시장, 설 명절 맞아 사회복지시설 위문

익산시가 설 명절을 맞아 지역 사회복지시설을 찾아 온정을 나눴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지난 6일 사회복지시설 4곳을 방문해 종사자와 생활인들이 따뜻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명절을 앞두고 시설 생활인과 온정을 나누고, 지역사회 전반에 이웃 돌봄과 나눔의 의미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정 시장은 △익산성묘요양원 △이리자선원 △아기배정요양원 △신광요양원을 찾았다.

정 시장은 시설 생활인들의 안부를 세심히 살피며 따뜻한 위로와 격려의 마음을 전했다. 아울러 종사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며 노고에 감사함을 표했다.

정현울 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묵묵히 헌신하고 계신 종사자 여러분의 정성 어린 돌봄이 있기에 익산시 복지의 온기가 이어지고 있다"며 "시민 모두가 서로를 보듬는 정 많은 익산이 되도록 이웃을 향한 따뜻한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1학기 수강생 모집

군산시가 관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오늘부터 '2026년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1학기 수강생을 모집한다.

사회통합프로그램은 외국인 주민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매김하는데 필요한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체계적으로 배우는 과정이다.

교육을 이수하면 거주(F-2) 및 영주(F-5) 비자 취득할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귀화허가 신청시 귀화 시험 면제 등 정주형 체류 자격 변경을 위한 다양한 혜택이 부여된다.

또한 시는 올해부터 '4단계(중급) 과정'을 추가 개설해 정주 여건 강화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4단계는 전문 인력이 거주 비자(F-2)로 전환하기 위한 필수 요건이자, 유학생들이 학업과 경제 활동(아라이트)을 병행하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단계인 만큼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1학기 교육은 0단계에서 4단계에 이르는 과정으로 오는 3월 1일부터 6월 14일까지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분말3길 23)에서 매주 일요일(오전 9시~오후 6시) 8시간씩 진행된다.

시원 대상은 합법 체류 외국인 및 귀화한 지 3년 미만인 외국인 주민으로 모집 정원은 총 115명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지갑 채우고 불편은 던다

다이로움 100만원 충전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 생활밀착형 행정 추진

익산시가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아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덜고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파격적인 지역사랑상품권 혜택부터 의료·교통 공백 없는 안전망 구축까지 시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속형 대책들로 채워졌다.

가장 눈에 띄는 대책은 지역사랑상품권 '익산 다이로움'의 파격적인 혜택 확대다. 시는 2월 한 달간 다이로움의 개인별 충전 한도를 기존 6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시민들이 이를 통해 최대 10만 원의 추가 지급 혜택을 누릴 수 있어 명절 성수품 준비 부담을 크게 덜 전망이다.

명절 성수품 물가 안정과 농산물 소비 촉진을 위한 지원도 병행한다. 시는 온라인 쇼플물 '익산몰' 설 기획전을 운영하고, 로컬푸드 어양정 설맞이 할인 행사를 통해 시민들이 합리적인 가격으로 명절 장바구니를 채울 수 있도록 돕는다.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이벤트도 풍성하다. 연휴 마지막날인 오는 18일까지 전통시장에서 다이로움으로 3만 원 이상을 결제하면 추첨을 통해 500명에게 1만 원 포인트를 지급한다.

또한, 10~14일 사이에는 구매 금액에 따라 최대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돌

려주는 환급 행사도 진행돼 시장 상인과 소비자 모두가 웃는 설 대목을 만든다는 구상이다.

귀성객과 성묘객을 위한 교통 편의 대책도 꼼꼼하게 마련됐다. 시는 연휴 기간 지역 공영주차장 103개소(7,252면)를 전면 무료 개방해 주차난을 해소한다. 특히 설 당일에는 공설운동장에서 팔봉공설묘지까지 무료 셔틀버스를 운행해 성묘길 혼잡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정현울 익산시장은 "시민들이 고물가 속에서도 걱정 없이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눌 수 있도록 제감도 높은 대책을 준비했다"며 "연휴 기간에도 시민 생활 전반을 꼼꼼히 살펴 모두가 안심하고 즐거운 설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군산시, 설 맞이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명절 물가 부담 완화 전통시장 소비 촉진

군산시는 설명절을 앞두고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기 위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2026년 농축·수산물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10일부터 14일까지 진행한다

이번 행사는 농축산물의 경우 대야시장, 주공시장, 수산물물은 공설·역전·신영시장과 수산물종합센터, 인근 해신상가에서 실시된다.

설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품과 선물용 농축·수산물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인 만큼 이번 환급행사는 시민들의 명절 준

비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환급 한도는 1인당 최대 2만 원으로, ▲3만4천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 ▲6만 7천 원 이상 구매 시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행사 기간 중 영수증 또는 모바일 결제 화면을 제시하면 현장에서 즉시 지급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

이현현 일자리경제과장은 "설 명절을 앞두고 농축·수산물 구매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시민들이 보다 부담 없이 전통시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번 행사를 마련했다"며, "환급행사를 통해 시장 방문이 늘어나고 상인들께도 실



질적인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군산=지송길 기자

정읍시 '1894 달하루' 미디어아트관 개관

국가유산에 미디어아트 기술·체험형 콘텐츠 접목

정읍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빛과 미디어아트로 풀어낸 복합 전시공간 '정읍 국가유산 미디어아트관 1894 달하루'가 지난 6일 문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다.

시는 이날 오후 2시 미디어아트관 개관식을 열고 전시·체험·굿즈를 연계한 국가유산 활용 모델의 출범을 공식화했다.

개관식에는 이학수 시장을 비롯해 윤준병 국회의원, 도·시의원, 지역 유관기관·단체장, 시민 등 300여 명이 참석해 정읍의 새로운 문화관광 거점의 탄생을 함께 축하했다.

행사는 폐페라 그룹 카르ديو와 퓨전 국악팀 '아리안'의 식전 공연을 시작으로 개관식과 제막식, 전시관 관람 순으로

진행됐다.

'1894 달하루'는 국가유산청이 지원한 국비 97억 5000만원과 시비 98억원 등 총 195억 50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됐다. 이는 국가유산에 미디어아트 기술과 체험형 콘텐츠를 접목해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이다.

전시관에는 정읍의 역사와 다양한 문화자원을 디지털 기술과 현대적 감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구성됐다. 동화농민혁명, 무성서원, 조선왕조실록 이단, 백제가요 '정읍사' 등 정읍의 핵심 역사 자산을 하나의 서사로 연결해 지역의 정체성을 입체적으로 보여준다.

아울러 기획전시로 국가유산청·국가유산진흥원이 디스트릭트와 협업해 제작한 '이음을 위한 공유'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전시는 국가유산의 보존과 활용은 물론 현대적 해석의 가능성을 모색하며 과거와 현재를 잇는 새로운 소통 방식을 제안한다.

전시관은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의 기획 전시를 통해 관람객과의 소통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시설은 연면적 4134㎡ 규모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조성됐다. 1층에는 정읍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8개 주제로 구현한 미디어아트 전시공간이 마련됐으며 2층에는 체험형 콘텐츠 공간과 어린이 참여공간, 기획전시실이 들어섰다.

이와 함께 아기사랑방과 반려동물사랑방 등 편의시설을 갖춰 다양한 연령층과 방문객이 머물 수 있는 열린 문화 공간으로 꾸며졌다.

이학수 시장은 "1894 달하루는 정읍의 역사와 국가유산을 현재의 언어로 새롭게 풀어낸 공간"이라며 "국가유산과 미디어아트, 체험 콘텐츠를 연계한 대표 관광자원으로 육성해 정읍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새로운 문화 경험을 제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군산시, 2등급 성과 바탕 청렴 행보 '박차'

'현장 청렴 특·내부 청렴도 설문조사' 병행

군산시가 오늘부터 전 부서를 직접 찾아가는 '2026 현장 청렴 특(Talk)' 운영과 함께 오는 13일까지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한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현장 소통과 내부 진단을 동시에 추진하며, 지난해 거둔 종합 청렴도 2등급 성과를 안정적으로 다지고 청렴 문화를 조직 전반에 뿌리내리기 위한 행보의 하나다.

먼저 '2026 현장 청렴 특(Talk)'은 53개 관·과·소와 27개 읍·면·동을 담당 부서가 직접 방문해 직원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소통 프로그램이다.

3월 11일까지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인사 담당 부서와 협업해 인사 제도에 대한 궁금증을 현장에서 즉시 해소하고, 공정한 인사 시스템과 청렴의 유기적 연계를 강화하는 데 주력하게 된다.

'내부청렴도 설문조사'는 조직 구성원의 청렴 인식과 실천 수준을 객관적으로 진단하기 위해 마련됐다.

조사는 전 직원 중 무작위 추출된 7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e-메일, 모바일) 익명 방식으로 진행되며, ▲청렴 저해 요인과 조직문화 개선 필요 요소 ▲부당한 업무지시 및 갑질 실태 ▲인사 관련 청렴도 인식 등을 면밀하게 파악한다.

또한 조사 결과는 실질적인 부패 취약 지점을 발굴하고, 맞춤형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

이다.

이에 앞서 군산시는 지난해 부패 취약 분야에 대한 맞춤형 시책을 통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5등급에서 2등급으로 수직상승 하는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바 있다.

시는 이번 현장 소통과 설문조사를 통해 얻은 생생한 현장 목소리와 통계 데이터를 종합해, 2026년 청렴 정책의 주요 방향을 최종적으로 결정하고 부패 시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환류 체계를 구축할 방침이다.

군산시 관계자는 "종합청렴도 2등급 달성이라는 값진 결과에 안주하지 않고, 조직 내부의 청렴 저해 요인을 과감히 개선해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 지점을 발굴하고, 맞춤형 개선 대책을 수립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될 예정

/군산=지송길 기자

군산형 주민참여 태양광 사업 본격화

그린에너지협동조합사회적경제지원센터와 시범사업 협약

군산시 재생에너지 사업 전담 기관인 군산시민발전주식회사(대표 이사 최영환, 이하 '시민발전')이 2026년 역점사업인 '군산형 주민참여 태양광 발전 시범사업' 본격 추진에 나섰다.

이를 위해 '시민발전'은 6일 군산사회적경제지원센터(센터장 최기혁)·군산그린에너지협동조합(이사장 김민수)과 업무협약을 맺으며 사업에 시동을 걸었다.

'군산형 주민 참여형 태양광 발전사업'은 지역 내 공공 유휴부지를 활용해 시민이 직접 참여하는 협동조합 등을 통해 '햇빛 나눔 발전시설'을 구축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번 협약에 따라 시민발전은 공공 유휴부지 확보와 행정절차 등 제도적 지원을 담당하며, 센터가 협동조합 설립 및 운영 전반 지원을 맡는다.

마지막으로 협동조합은 태양광 발전소의 실질적 운영 주체로서 조합원 모집 및 유휴부지를 통한 태양광 발전소 건립 등 중추적 역할을 할 예정이다. /군산=지송길 기자

익산시, 민선8기 공약 이행률 94.3%

익산시가 민선8기 공약 이행률 94.3%를 기록하며 시민과의 약속을 책임 있게 이행하고 있다.

지난 6일 익산시에 따르면 민선8기 공약사업은 7대 분야 총 87개 사업으로, 지난달 말 기준 이행률 94.3%를 달성했다.

시는 민선8기 출범 이후 공약을 시정 운영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체계적인 관리와 정기 점검을 통해 공약 이행 상황을 꼼꼼히 점검해 왔다.

특히 공약 추진 과정 전반에 시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매년 시민배심원제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공약 이행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시민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기반으로 한 신뢰 행정을 강화하고 있다.

그 결과 민생 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 강화, 정주 여건 개선 등 시민의 삶과 직결된 분야에서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시의 책임있는 행정은 대외적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시는 지난해 기초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최우수상을 받았으며, 전국 기초단체장 공약 이행 평가는 4년 연속 최우수 등급이라는 우수한 성적표로 신뢰 행정을 입증했다.

시는 앞으로도 면밀한 점검과 보완을 통해 공약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민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는 성과 중심의 시정을 이어갈 계획이다. /익산=최준호 기자



정읍시, MZ세대 공무원 마음 잡는 '소통 행정'

정읍시가 지난 5일 이학수 시장과 신규 임용된 공무원 14명이 함께하는 '신규직원 현장 소통 간담회(브런치 토크)'를 개최했다. 이는 지난해 처음 도입해 직원들의 호평을 받았던 소통 프로그램으로 올해도 신규 직원들의 조직 적응을 돕기 위해 연속 추진됐다.

이번 간담회는 기존의 딱딱한 회의실을 벗어나 관내 카페에서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 진행됐다. 갓 공식 사회에 임한 신규 직원들의 긴장을 풀어주고 격식 없는 대화를 통해 시정 운영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한 취지다.

이날 이학수 시장과 신규 직원들은

브런치를 함께 즐기며 근무 소감과 조직 생활에 대한 진솔한 생각들을 공유했다. 특히 직원들은 평소 시장에게 궁금했던 점이나 시정 발전을 위한 건의사항을 자유롭게 이야기하며 세대와 직급을 넘나드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이학수 시장은 "신규 직원들의 꾸밈없고 솔직한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어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며 "앞으로도 형식에 구애받지 않는 소통의 자리를 꾸준히 마련해 조직 구성원 간의 이해와 공간대를 넓혀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정인 기자

익산시의회, 제275회 임시회 폐회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가 지난 6일 제27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익산시 공무원 등 직무발령 보상 조례안', '익산송리문화의 숲 관리위탁 동의안'을 비롯해 총 15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지난달 26일부터 12일간 열린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통해 올 한 해 익산시의 시정 방향을 점검하고 조례안, 동의안 등 안건을 심사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규대 의원 - 민간이 연휴등 관광, 이체 행정이 원활할 차례 △이중순 의원 - 중앙동·평화동·인화동 행정복지센터 엘리베이터 설치 검토 및 신축·이전 촉구

△유재구 의원 - 스포츠클럽 속도제한 단력적 조정과 파크골프장 셔틀버스 도입으로 시민불편 해소 및 지역경제 활력 제고방안 제안 △김순덕 의원 - 과밀 이용이 예견된 익산시 문화체육센터의 안전관리 대책 마련 촉구 △조남석 의원 - 지방하천 나암천의 항구적인 정비계획 수립을 촉구했다.

김경진 의장은 "의회는 단순한 승인 기관이 아니라 시민의 눈높이에서 정책을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며 시정을 바로잡아 나가는 동반자"라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제시된 의견들을 적극 반영해달라고 집행기관에 당부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고창군 '로컬100' 문화자원 선정

보리밭축제·선운사 고인돌유적 선정 문화 다양성 입증

고창군이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제2기 로컬100'에 무려 3개의 문화자원이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로컬100'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전국의 우수한 문화자원 100곳을 선정하는 사업이다. 지역 고유의 문화적 가치와 매력을 국민에게 널리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이번 제2기 로컬100은 1차 서면 심사, 2차 대국민 투표를 거쳐 최종 선정이 이뤄졌다.

지역 고유의 문화 자산을 발굴해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관광객 유입을 통한 지역 생활인구 확대를 목표로 한다. 이번 선정에 따라 고창군은 앞으로 2년간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전폭적인 마케팅 지원을 받는다. 고창군은 △고창 청보리밭 축제 △고창 선운사 △고창 고인돌 유적 총 3개소가 이름을 올렸다. 전국적으로는 단 5개 지역만이 한 지역 내 3개소 이상 되는 선정되는 성과를 거뒀다. 특히 고창군은 이렇게 농업·자연·역사·종교 문화가 어우러진 복합적인 문화자원을 고루 인정받으며, 지역 문화의 다양성과 경쟁력을 동시에 입증했다.

△선사문화의 정수, 유네스코 세계유산 '고창 고인돌 유적'=죽림리 일대 442기와 도산리 5기 등 총 447기의 고인돌이 밀집 분포해 있다. 연간 백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찾는 명소로, 탐방길과 선사체험 프로그램 등 참여형 문화관광 자원으로 활용되고 있다.

△천년 고찰과 자연이 어우러진 치유 공간 '고창 선운사'=천년고찰 선운사는 사계절 참배객과 관광객의 발길

이 이어지며, 특히 초봄 동백꽃 풍경은 선운사의 상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템플스테이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열린 문화·치유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농업이 문화가 되는 현장 '고창 청보리밭 축제'=청보리와 유채꽃이 어우러진 장관으로 매년 수십만 명의 관광객이 찾으며, 주민이 직접 기획·운영하는 주민주도형 축제로 성장해왔다. 최근 드라마 '폭삭 속았수다' 촬영지로도 주목받았으며, 2025년 제22회 축제에는 51만 명의 관광객을 유치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로컬100 선정은 고창이 지닌 문화자원의 가치가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라며, "앞으로도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광·문화 콘텐츠로 연계해 지역 활성화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취업청년정착수당 참여자 모집

50명 추가 모집

김제시는 관내에 취업한 청년들의 안정적인 취업을 지원하고, 장기근속 유도를 위한 청년취업 지원사업 '김제시 취업청년 정착수당'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 사업은 청년 고용 창출과 장기근속을 유도해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김제시만의 특색있는 정책으로, 현재 190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참여자가 5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지원대상은 공고일 기준 김제시에 거주하는 관내 중·중견 제조기업(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18세 ~ 39세 청년으로, 가구기준 중위소득 180%이하야 하고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청년이다. 선발된 대상자에게는 1인당 최대 5년간 1,800만원 지원하며, 최초 약정 후 2년까지는 분기별로 90만원, 2년 후부터 4년까지는 분기별로 180만원, 5년차 경과 후는 일시불로 360만원을 지급한다.

참여를 희망하는 청년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해 정착을 도모하기 위해 추진되고 있는 김제시만의 특색있는 정책으로, 현재 190명의 청년이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는 신규참여자가 50명을 추가로 모집할 계획이다.

정성주 김제시장은 "앞으로도 청년이 머무르고 일하고 싶은 도시 김제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청년 일자리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고창군, 귀뚜라미문화재단 70명에 총 5천만원 장학금 지원

고창군은 지난 6일 군청 5층 회의실에서 '2026년 귀뚜라미 문화재단 장학금 수여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와 최진민 귀뚜라미그룹 회장, 장학생 등 100여명이 참석했다.

귀뚜라미 문화재단은 귀뚜라미보일러 창업주 최진민 회장이 사재 출연으로 설립해 1985년부터 매년 장학금(7만여명, 550억원)을 지원해 오고 있다.

이번 고창군 지원 대상은 중·고등학교 60명과 대학생 10명으로 70명이 선정돼 총 5000만원의 장학금이 지원된다. 중·고등학교는 성적 우수, 예·체·기능 특기, 저소득, 모범추천의 4가지 분야에서 학교장 추천을 받아 선발됐고, 대학생은 공개 모집을 통해 학업 성적과 생활정도를 고려해 장학생으로 뽑혔다. 고창군에서는 지역 인재육성에 힘을 보태준 최진민 회장의 공로에 감사를 표하며 군민의 마음을 담은 감사패를 전달했다. 김영식 고창군 부군수는 "지역 학생들을 위해 소중한 장학금을 지원해 준 귀뚜라미 문화재단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지역학생들이 이번 장학금을 발판 삼아 학업과 진로에 전념해 고창을 넘어 대한민국을 빛낼 인재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백종규 기자

고창군, 오창휴게소에서 농특산품 특판

고창군이 설 명절을 앞두고 중부고속도로 오창휴게소(하남방향)에서 지역농특산품 특판행사를 연다. 이번 특판은 금·토·일 각 2차례씩(6~8일, 13~15일) 진행되며 귀성객들에게 설 선물로 제격인 고향 풍천장어와 팔고구마를 선보이게 된다. 앞서 고창군은 지난 1월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 전문 기업인 ㈜범화과 지역 발전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다.

그간 수도권과 백화점 등에 집중됐던 관내 우수 농특산품의 유통망을

중부권으로 확대하는 기회가 될 전망이다. 고창군은 이번 행사를 시작으로 신선 농산물의 출하 시기에 맞춰 지속적인 판매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고창군의 보물과도 같은 우수한 농특산품의 판로를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은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 구현을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농민 소득 증대를 위해 다양한 시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김제시, 국가예산 신규사업 발굴 보고회

40개 발굴 사업 국비 확보 방안 논의·현황 점검

김제시가 지역 미래성장 핵심 전략으로 '국가예산 확보'를 내건 가운데, 지난 6일 신규사업 2차 발굴 보고회를 열어 발굴 현황을 점검하고 40개 발굴 사업(국비 1조 5528억원)에 대한 구체적 국비 확보 방안을 논의하며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보고회는 이현서 부시장을 주재로 국소장, 부서장 등 40여명이 참석해 지난해 10월 1차 발굴 보고회에 이어 두 번째 마련된 자리로, 2026년 재정지출 증가율(8%) 대비 2027년 증가율(5%) 축소에 따른 지자체 간 경쟁 심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국가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개최됐다.

주요 발굴 사업은 △새만금 수변도시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국비 450억원) △새만금 스마트 원에너지 기반 조성(국



비 91억원) △국립청소년비이오생명센터 천문대 조성(국비 50억원) △김제 공설수목원 조성(국비 32억원) △진화경에너지타운 조성(국비 30억원) 등이 있었으며, 향후 논리를 보강해 실효성을 확보하고 전북도·부처와 적극적인 소통을 통해 실질적 국가예산 반영으로 이어갈 방침이다.

/김제=온봉기 기자

부안군, 과대포장·분리배출 표시 집중 점검

부안군은 설 명절 과대포장으로 인한 환경오염 및 자원 낭비를 막기 위해 대형 마트 등 유통매장을 중심으로 오늘부터 13일까지 5일간 과대포장·분리배출표시 이행 여부에 대한 집중 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제품은 명절을 앞두고 판매량이 급증하는 제과류, 주류, 화장품류, 잡화류(완구, 문구, 지갑 등), 1차식품(종합제품) 등 명절 선물세트 제품이다. 종합제품은 같은 종류 또는 다른 종류의 최소 판매단위 제품을 2개 이상 묶음 포장한 제품이다.

과대포장 점검의 경우 포장공간비율(품목별 10%~35% 이하) 및 포장횟수 제한(품목별 1차·2차 이내) 초과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또 분리배출 표시 여부도 점검한다.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등 분리배출 표시 의무대상 포장재에는 인쇄 또는 각인, 라벨 부착을 통해 분리배출 표시를 반드시 해야 한다.

과대포장 및 분리배출 표시에 대한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군 관계자는 "설 명절을 맞아 선물세트 구매가 늘어나는 시기에 과대포장으로 인한 자원 낭비를 줄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포장재 사용 감축 노력 등을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고창군, 청소년 유해환경 민·관 합동 단속

고창군이 겨울방학을 맞아 청소년들의 일탈을 예방하고 안전한 생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 5일 민·관 합동으로 '청소년 유해환경 집중 점검 및 단속'을 실시했다.

점검은 겨울방학 동안 청소년 이용이 잦은 번화가와 우범지역을 중심으로 추진됐으며, 고창군청 인제양성과, 고창경찰서(여성청소년계), 고창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등 3개 기관이 협력해 합동 단속반을 구성했다.

대상은 편의점과 음식점 등 청소년 출입 업소로, 청소년 출입·고용금지

위반 여부와 '19세 미만 청소년 술·담배 판매 금지' 표시 부착 여부를 중점 확인했다. 아울러 최근 위·변조된 모바일 신분증을 이용한 구매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사업주를 대상으로 '모바일 주민등록증 QR 검증 방법'도 적극 안내했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겨울방학은 청소년들이 유해환경에 노출되기 쉬운 시기"라며 "청소년들이 건전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계도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부안 부안읍 명품해장국 '한 끼 식사 나눔' 봉사

부안군 부안읍 소재 명품해장국(대표 김희권)은 지난 5일 노인 및 장애인 등 20명을 초청해 '한 끼 식사 나눔' 봉사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명품해장국은 2023년부터 부안읍 지역 사회보장협의체와 긴밀한 협력을 통해 정기적인 후원 활동을 펼쳐오고 있다. 그 대표적인 활동 중 하나가 무료 식사 봉사로서 바깥 활동이 어렵고 한 끼 식사를 챙겨 드시기 힘든 장애인·독거노인을 초대해 분기별 따뜻한 식사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고, 매주 사골 육수 20백을 기부해 고독사 위험 가구 및 거동 불편 노인에게 밑반찬을 제공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나눔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김희권 대표는 "2026년에도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식당으로 남고자 한다"며 "어르신들이 맛있게 음식을 드시면서 서로 담소도 나누고 감사의 마음도 전달해 주시니 나눔의 기쁨과 보람이 더 느껴진다"며 수줍은 웃음을 지었다.

/부안=신상수 기자

부안군,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 진행

10~15일까지 농축 수산물 동시 환급 진행

부안군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을 활성화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위해 10일부터 14일까지 5일간 부안상설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고품가로 인한 군민들의 장바구니 부담을 완화하고 국내산 농·축·수산물 소비 촉진을 통해 지역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 기간 동안 부안상설시장 내 환급행사 참여 점포에서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매 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 한도는 품목별로 각각 적용되며 구매 금액이 3만 4000원 이상 6만 7000원 미만이면 1만원, 6만 7000원 이상이면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1인당 수산물 최대 2만원, 농축산물 최대 2만원 한도로 환급받을 수 있으며 사실상 부안상설시장은 수산물과 농축산물 환급행사를 동시 진행해 최대 4만

원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행사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로 소비자는 행사기간 내 결제한 영수증과 신분증을 지참해 부안상설시장 1층 환급행사 장소에 방문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이번 환급행사가 설 명절을 앞두고 군민들의 장보기 부담을 덜고 전통시장 이용 확대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전통시장과 지역 상권 활성화를 위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안=신상수 기자

김제시, 기업지원 시책 설명회 성료

도내 중소기업지원 유관 기관 합동설명회 가져

김제시가 관내 중소기업의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추진한 '2026년 기업지원 시책 설명회'가 기업인들의 뜨거운 관심 속에서 마무리 됐다.

6일 지평선산업단지 다목적복합센터에서 열린 이번 설명회는 시를 비롯해 전북특별자치도, 전북중소벤처기업청, 전북테크노파크, 전북조달청 등으로 주요 기업지원 유관기관이 합동으로 시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당초 예상 인원을 상회하는 100여 명의 기업 대표 및 실무자

들이 참석해 시와 유관기관의 지원 사업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특히 기관별 1:1 개별 상담 창구와 '정책상담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는 등 현장 중심의 소통 행정이 기업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시는 현장에서 총 44개에 달하는 방대한 지원책을 담은 안내서를 배포하고 분야별 핵심사업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사업 △청년근로자 교통비 지원 등 17개의 기업지원 사업과 △해외시장 개척사업(김제형 통상타터) △수출물류비 지원사업 등 5개의 수출지원사업 △김제형 내일채움공제 지원사업 △신선농업 취업지원사업 등 14개의 고용지원사업과 △전업장려금 지원

△청년 및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등 8개의 인구유입 지원사업이다.

설명회에 참석한 한 기업 관계자는 "여러 기관에 흩어져 있는 중소기업 지원 정보를 한자리에서 확인하고 상담까지 받을 수 있어 실무적으로 큰 도움이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현서 부시장은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해 중소기업 육성금이 차보전 지원, 지역특화형 비자 사업, 기숙사 임차료 지원 등 기업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협력을 강화해 기업별 맞춤형 지원으로 경제적 난관을 함께 극복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제=온봉기 기자

남원시 배수개선사업 선정...103억 확보

방현지구 정비사업 추진 선정 금지면 방촌·택내·창산리 개선 배수문 신설 등 5.9km 정비 계획

남원시는 집중호우 시 상습 침수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금지면 방촌리, 택내리, 창산리 일원의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배수문 신설 및 배수로 정비 등의 사업추진을 위한 방현지구 배수개선사업에 선정돼 국비 103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상으로 인해 집중호우 시 내수배제가 어려워 농경지 침수 피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해온 지역이다. 특히 여름철 장마기간에 농작물이 침수되며 생산량이 감소하는 등 농업인들의 불편과 피해가 지속되어 오랫동안 개선 요구가 제기돼 왔다.

이와함께 금지면 귀석리 일원에서 발생하는 상습침수 피해 예방을 위한 귀석지구 배수개선사업도 기본조사지구로 선정됐으며, 2026년 기본조사 실시 및 신규착수지구 신청을 통해 2027년도 신규착수지구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할 예정이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2026년 청년창업 지원 모집 '최대 2천만원'

총사업비 50% 내 창업자금 지원 6개월 이상 거주 18~49세 대상

순창군은 청년들의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유도하고 경제적 자립 기반 마련을 위해 2026년도 청년창업 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최근 6개월 이상 순창군에 주민등록을 둔 18세 이상 49세 이하의 예비창업인으로서, 사업장 조성에 필요한 실내 인테리어 비용과 기계·장비 구축비 등이 지원된다.

대면 심사를 거쳐 창업 아이템의 실현 가능성, 지속 가능성, 전문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뒤 최종 지원 대상자를 선정할 예정이다.

순창=박지현 기자

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관내 청년 예비창업자 5개소를 선정해, 총사업비의 50% 범위 내에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창업 초기 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공고일 기준 고용보험 가입자, 사업자등록 보유자, 국세·지방세·세의 수입 체납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주류도매업, 주점업, 건설업, 부동산업 등 일부 업종은 지원이 제한된다.

군 관계자는 "앞으로도 청년이 순창에서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정착할 수 있도록 다양한 청년정책을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민관 협력 '완주형 통합돌봄' 본격 가동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 개최 의료·요양·복지 심의 자문 역할

완주군이 초고령사회 진입과 도농복합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완주형 통합돌봄' 체계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의 첫발을 땀다.



지난 5일 완주군은 '완주군 통합지원협의체를 발족하고 제1차 정기회의를 열어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지난 5일 완주군은 군청 중회의실에서 '완주군 통합지원협의체' 위촉식을 열고, 제1차 정기회의를 열어 '2026년 통합돌봄사업 실행계획(안)'을 심의·의결했다.

회의에서는 '은(溫)정한 돌봄, 완주에 (愛)살다'를 비전으로 한 2026년 실행계획이 중점 논의됐다.

특히 군은 고령 장애인, 장기요양 제가급여자, 퇴원환자 등을 주요 대상으로 맞춤형 서비스를 연계·제공해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구상이다.

완주=김명근 기자

이날 협의체는 위원장인 유희태 완주군수의 주재 아래 첫 회의를 가졌으며, 민간 부위원장으로 구성된 완주군 간호사회장을 선출했다. 위원장은 군의

원을 비롯해 보건·의료기관, 복지·돌봄 관련 기관 및 단체, 그리고 관련 분야 학계 전문가 등 총 16명으로 꾸러졌다.

유희태 군수는 "협의체 위원들의 전문성과 현장 경험을 믿어줌 삼아 완주군만의 실효성 있는 돌봄 모델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남원시 청사초롱 SNS 90% 긍정 '야간관광 아이콘'

빅데이터 감성어 분석 만족도 높아 봄·가을 연금량 급증 '인증샷 명소'

남원시가 춘향제 사전홍보와 구도심 야간 경관 활성화를 위해 조성해 온 '청사초롱'이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단순한 설치물을 넘어 관광객들에게 압도적인 호응을 얻는 야간관광의 핵심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점이 확인됐다.



남원시 구도심과 주요 관광지 일대의 '청사초롱'이 SNS 빅데이터 분석 결과 90% 이상 긍정 반응을 보이며 야간 관광의 핵심 자원으로 인식됨이 확인됐다.

고려대학교 융합연구원 디지털 혁신 연구센터에서 수행한 '남원시 SNS 빅데이터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청사초롱에 대한 SNS상 감성어 분석(긍정) 결과 '예쁘다', '아름답다', '고즈넉하다' 등 시각적·감성적 만족을 나타내는 긍정 반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대상이 아닌 야간 경관과 관광을 아우르는 공공문화 자산으로 보고, 지속 가능한 관리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는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청사초롱을 야간 경관형 공공문화 인프라로 관리하고, 축제와 연계한 운영을 고도화할 계획이다. 현재 구도심과 주요 관광지 일대 약 18.8km 구간에 총 3만2,740개의 청사초롱이 설치돼 있다.

남원=정하복 기자

지난해 1월 20일부터 올해 1월 19일까지 분석된 주요 결과에 따르면, 청사초롱에 대한 실제 방문 경험·미적 만족도가 매우 높음으로 나타났다. 감성어 분석 중 긍·부정비율에서 긍정이 1.135건으로 90.3%를 차지했다.

특히 연관어 분석에서 '청사초롱'은 남원, 춘향, 광한루, 야경, 조망, 산책 등이 나타나 청사초롱이 지역 정체성과 결합된 야간 관광 자원으로 인식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같은 결과에 고려대 디지털 혁신 연구센터는 청사초롱을 설치·철거 논쟁

남원=정하복 기자

또한 일정한 계절성(봄·가을)과 행사성 특성을 가진 관광형 검색 키워드로, 이 기간 최대 온라인 연금량이 약 100

완주 유의식 군의장, 지방의정봉사대상 수상

226개 기초의회 총 38명 선정 '군민 뜻 우선 의정 이어갈 것'

완주군의회의는 최근 유의식 의장이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가 수여하는 '대한민국 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유의식 의장은 지난달 28일 의장협 정기총회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을 수상했다. <사진=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지난달 28일 충북 청주시 청주오스코에서 열린 '대한민국 시·군·자치구의회 의장협의회 2026년 정기총회'에서 수상자로 선정됐다.

유 의장은 제9대 완주군의회의 의장으로서 의회의 본연의 역할인 견제와 대안을 균형 있게 수행해 왔다는 평가를 받았다.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대상은 전국 226개 기초의회 의원 가운데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방자치 실현에 크게 기여한 지방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공공성과 책임성을 대표하는 권위 있는 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유 의장은 "앞으로도 군민의 목소리를 최우선에 두고, 지방자치의 가치를 현장에서 실현하는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유 의장을 포함해 총 38명이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어서 "최근 전주·완주 행정을 비롯해 총 38명의 지역과 직결된 중대한 논의들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지방의회의 역할과 책임은 더욱 무거워지고 있다"며, "이러한 시안일수록 속도나 정치적 논리가 아니라 군민의 뜻과 민주적 절차가 무엇보다 우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완주 공설공원묘지 경사로 '염수분사 자동제어' 도입

완주군시설관리공단이 조달청 주관 '2026년 제1차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으로 선정돼, 완주 공설공원묘지 내 경사로 구간에 노면상황 분석 및 염수분사 자동제어 시스템을 도입한다.

공단은 이번 사업을 통해 조달청으로부터 국비 1억 800만 원을 지원받아 공설공원묘지 묘역 내 경사로 구간에 해당 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공설공원묘지는 경사로가 많은 장소로 시설 특성상 겨울철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장소로, 이번 혁신제품 도입을 통해 겨울철 강설 및 결빙으로 인한 미끄럼 사고를 예방하고 보행자의 안전한 이동 환경을 확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희수 이사장은 "조달청 혁신제품 시범사용 기관 선정은 외부 재원을 적극 활용하여 군민의 안전을 한층 강화할 수 있는 뜻깊은 기회"라며 "앞으로도 이용객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하고 스마트한 시설환경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완주=김명근 기자

순창군, 감독공무원·계약실무자 역량 강화 교육 진행

순창군은 공사·용역·물품 계약업무의 전문성을 높이고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지난 6일 감독공무원 대상 계약실무 역량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지난달 19일 (주)공공계약연구원과 체결한 연간 용역 계약의 일환으로 진행됐으며, 감독공무원 실무자 교육과 질의응답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군청 3층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이날 교육에는 공사·용역·물품 감독공무원 및 계약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해 감독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실무역량 강화를 위한 강의에 집중했다.

강의는 지방회계 및 계약 분야 전문가인 공공계약연구원의 한길옥 총괄대표가 맡았다. 한 강사는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28년간 예산·계약 분야 실무를 담당한 전문가로, △감독공무원 계약실무 기본 교육 △감사 수법시례 공유 △회계·계약 관련 질의응답 등 감독공무원 눈높이에 맞춘 내용을 다뤘다.

군 관계자는 "이번 교육을 통해 감독공무원들의 계약업무 이해도와 대응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순창=박지현 기자

남원시, 명절 집단 감염 대비 비상방역체계 운영

남원시보건소(소장 한용재)는 오는 2월 14일부터 18일까지 설 연휴 동안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 집단발생에 대비해 상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한 비상방역체계를 운영한다.

설 연휴 기간에 가족·지인 간 모임과 음식 공동 섭취가 증가함에 따라 감염병 집단 발생 위험이 커지는 만큼 남원시보건소는 감염병 대응을 위해 신속한 신고 접수와 방역, 비상 근무조를 편성해 24시간 비상 연락 체계 유지하는 한편, 집단발생 모니터링을 할 예정이다.

수인성·식품매개 감염병은 오염된 물이나 식품을 섭취해 감염되며, 주로 설사, 복통, 구토 등 위장관 증상이 나타나는 감염병이다. 대표적으로 살모넬라균 감염증, 비브리오패혈증, 노로바이러스 감염증 등이 있으며, 위생적으로 조리되지 않았거나 장시간 상온에 보관된 음식을 섭취할 때 발생 가능성이 높아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이에 남원시보건소는 감염병 예방을 위해 손씻기 6단계 생활화(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비누로 손 씻기) △음식은 충분히 익혀 먹기 △물은 끓여 마시기 △채소, 과일 등은 깨끗한 물에 씻거나 껍질 벗겨 먹기 △설사 증상이 있는 경우 음식 조리 및 준비하지 않기 △위생적으로 조리하기 △생선·고기·채소 도마 분리 사용(칼, 도마는 조리 후 소독)을 준수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용재 남원시보건소장은 "을 위해 2인 이상 설사, 구토 등 유사 증상 환자가 발생하면 즉시 보건소로 신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순창군,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 신청 접수

주택·비주택·지붕개량 등 400동 지원...최대 1000만원

순창군이 주민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2026년 슬레이트 처리지원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대 700만 원 △비주택 철거 면적 200㎡ 초과시 사업비의 50%, 최대 1,000만 원, 취약계층 최대 1,000만 원이다. 지원금은 건축물 대장 기준으로 산정되며, 지원 한도를 초과하는 비용은 본인 부담해야 한다.

이날부터 오는 10월까지 대상자를 모집한다.

이날 사업은 석면이 함유된 노후 슬레이트 건축물의 철거와 지붕개량을 지원해 주민의 건강 불안을 해소하고 마을 경관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올해는 주택 324동, 비주택(창고, 축사 등) 30동, 지붕개량(주택) 48동 등 총 400여 동을 지원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은 전액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일반가구도 조건에 따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2월부터 10월 말까지 해당 건축물이 위치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서와 건축물 소유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순창=박지현 기자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 발대... '참여 핵심 주체로'

청년 정책 전반 참여 협력 창구 프로젝트 추진·정책이카데미 등

완주군이 지난 6일 완주청년종합지원센터 대강당에서 '2026년 완주군 청년정책이장단 발대식'을 열고, 청년 주도 정책 참여를 본격화했다.

청년정책이장단은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활동하며 △완주군 청년정책 홍보 및 청년활동 참여 △지역 청년 인적 네트워크 구축과 청년활동가 발굴 △지역에 필요한 청년활동 및 프로젝트 제안·추진 △정책회의, 청년정책이카데미 등 기본 활동 참여·추진을 수행할 예정이다.

청년정책이장단은 청년의 삶과 밀접한 정책 수요를 발굴하고 정책 추진 과정 전반에 참여하는 협력 창구로, 청년의 시각에서 제안된 의견을 행정과 공유하며 청년이 정책의 수혜자를 넘어 정책의 주체로 참여하는 구조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둔다.

특히 활동의 전문성과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참여정책분과 △홍보분과 △문화기획분과 등으로 나눠 운영한다.

완주=김명근 기자

이날 발대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남원시 '행복버스'로 지리산권 교통 사각지대 해소

산내면 노선 일 2회 운행 시작

남원시는 지난 1월 1일부터 교통 취약지역인 산내면 주민들의 이동 편의를 높이기 위해 '행복버스'를 일 2회 투입해 운행 중이다.

기존 시내버스 7회와 마을버스 2회를 포함해 하루 총 9회 운행으로 주민들의 이동편이 한층 강화되었다.

행복버스 오전 노선은 11시 20분 인월시장을 기점으로 산내초교와 달궁(12:00)을 경유하며, 인월시장에 이르는 순환 노선으로 운행된다. 오후 노선은 16시 인월시장을 기점으로 산내초교와 달궁(16:40), 상황(17:05) 마을을 차례로 경유한다.

시는 인월, 아영, 운봉 등 기존 동부권 거점 지역의 버스 노선을 효율적으로 재조정하여 산내면 지역까지 행복버스 운행 범위를 확대했다. 특히 이번 노선 개편은 한정된 예산 범위 내에서 노선 효율성을 높여 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날 발대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남원=정하복 기자

이날 행복버스 투입으로 산내면은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 풀뿌리 우수의정 최우수상 수상

이해양 무주군의회 의원이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풀뿌리 우수의정에 선정됐다.

이해양 의원은 지난 5일 서울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2026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 풀뿌리 우수의정 시상식 생활 정치 분야의 특별한 성과를 이룬 공로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해양 의원은 제9대 무주군의회 의정활동으로 군민들의 농지업무 처리 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시킨 한국농어촌공사 무주지소 설치 추진, 예비군 훈련장 장소 변경 추진, 버스공영제 견인 등 여러 정책을 안착시켰다.

전국여성지방의원네트워크는 지난해 12월, 전국의 기초·광역 여성위원을 대상으로 풀뿌리 우수의정 사례를 공모했다. 그리고 심사를 거쳐 맑은 정치, 평등 정치, 생활 정치 분야 수상자를 선정했다.

이 가운데 이해양 의원은 주민의 삶과 밀접한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했다고 평가 받고 가장 경쟁이 치열했던 생활 정치 분야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이해양 의원은 "한결같이 주민의 생활을 유심히 보고 피부에 닿는 정책들을 고민해 왔다. 의미 있는 상을 받은 만큼 앞으로도 행정을 견인하는 의정활동을 위해 정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수상소감을 말했다.

/무주=최의호 기자

장수군, '주부의 건강한 꿈 채워드림' 프로그램 운영

장수군 장애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건강 프로그램 '주부의 건강한 꿈 채워드림'을 오는 4월 7일까지 매주 2회 운영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가사와 육아 등으로 건강관리에 소홀해지기 쉬운 주부 20명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일상생활에서 바로 실천할 수 있는 맞춤형 건강관리 교육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갱년기 신체활동 및 면역력 증진을 위한 명상요가 △저염식생활 실천을 위한 조리실습 △심폐소생술 및 자동 심장충격기 사용법 교육 등으로, 신체 건강 관리와 함께 응급 상황 대응 능력 향상에도 중점을 두고 운영된다.

장수군은 이번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주부들이 갱년기 건강 문제를 보다 능동적으로 관리하고, 스스로 건강을 돌볼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데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성수면, 농한기 '맞춤형 문화복지 서비스' 큰 호응

진안군 성수면이 농한기를 맞은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추진 중인 '마을별 맞춤형 문화·복지 서비스'가 주민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프로그램은 지난 1월 초 마을별 수요 조사를 통해 디지털 문해력을 높이는 스마트폰 활용교육 △활기찬 노년을 위한 웃음치료 및 건강체조 △정서적 안정을 돕는 공예·원예치료 △공동체 결속을 다지는 노래교실 등 주민들의 요구에 맞는 다채로운 수업으로 구성됐다.

2월까지 14개 마을에서 총 63회에 달하는 프로그램이 성황리에 운영 중이며, 추가 수요 발굴을 통해 수혜 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성수면은 앞으로 배후 마을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사회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한층 더 살기 좋고 활력 넘치는 농촌 중심지로 발전시키는 데 집중할 방침이다.

/진안=전길빈 기자

무주군장애인체육회 운영 본격화

6일 무주국민체육센터 사무실 현판 제막식 개최

무주군장애인체육회(무주국민체육센터)가 지난 6일 사무실 현판 제막식을 열고 장애인 체육 업무를 전담할 사무국 운영의 시작을 알렸다.

이날 행사에는 황인홍 무주군장애인체육회장(무주군수), 오광석 무주군의회 의장, 송재호 무주군체육회장을 비롯한 장애인체육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

현판 제막과 기념 촬영 등의 순으로 진행된 행사에서 황인홍 장애인체육회장은 "현판 제막식은 단순한 행사를 넘어 장애인 체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라며 "전담 사무국 운영이 시작될 만큼 장애인 체육 행정의 전문성을 높이고, 장애인 체육인들의 편의를 뒷받침하는 등 현장 중심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장애인체육회가 지난 6일 사무실 현판 제막식을 열었다

무주군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은 상근 인력 3명(국장1, 행정1, 지도자1)으로 구성됐으며, 장애인 체육진흥 사업 기획, 종목 육성, 체육 활동 참여 확대 등 실질적인 행정 지원을 담당한다.

무주군에 따르면 지역 내 장애인 수는 2천3백여 명으로, 150여 명이 파크골프와 게이트볼, 골볼 등 생활체육 종목에 참여하고 있다.

무주군은 앞으로 전담 사무국이 중심이 돼 장애인들의 종목별 참여 기회 확대와 맞춤형 지원에 집중할 계획이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아프리카 돼지열병 관내 농장 집중 관리

관내 농장 대상 집중 방역 관리 정밀 역학조사 실시

임실군은 지난 1일 고창군 소재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ASF)이 확인됨에 따라, 역학적으로 연관 가능성이 있는 관내 농장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 관리와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군은 △임상 예방 및 정밀 검사 실시 △축산 차량 및 종사자 이동 통제 △축사 내·외부 및 주변 도로에 대한 집중 소독 △출입 통제 및 방역 점검 강화 등 선제적 차단 조치를 시행하며 관내 발생 가능성 차단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역학 관련 농장에 대해서는 방역 전담 인력을 투입해 일일 예찰을 실시하고, 의심 증상 발생 시 즉각 신고 및 검사 체계를 가동하는 등 신속 대응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또한 공동 방역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관계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아래 상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임실군은 지난 1일 고창군 양돈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확인됨에 따라, 관내 관련 농장을 대상으로 집중 방역과 정밀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임실군은 관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삼고,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선제적이고 철저한 방역 대응에 나서고 있다"며 "양돈 농가에서는 이동 통제 및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주시고, 의심 증상 발견 시 즉시 신고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장수군, 설 연휴 대비 환경오염배출시설 특별점검

연휴 전·중 2단계 점검으로 환경오염 사전 차단 및 군민 생활환경 보호 강화

장수군은 설 명절을 앞두고 환경오염 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관내 환경오염배출시설을 대상으로 특별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지난 6일 밝혔다.

장수군은 이번 특별감시단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배출시설 점검반을 운영하며 총 2단계의 대응 체계를 가동한다.

1단계인 연휴 전(9~13일)에는 환경오염 취약업체에 협조문을 발송해 자율 점검을 유도하고 사전 계도를 실시한다.

이어 2단계인 연휴 기간(14~18일)에는 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을 중심으로 순찰을 강화하며, 비상상황실을 상시 운영해 위반행위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비상 체계를 유지한다.

특히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의 정상 운영 여부와 오염물질 무단배출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또한 장수군은 점검 과정에서 경미한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 조치를 실시하고, 중대한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방침이다.

최훈식 군수는 "설 명절 기간에도 환경오염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예방 중심의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며 "군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속에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환경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장수=최진수 기자

진안군,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 보급사업 추진

전기승용차 60대·화물차 18대 등 오는 12일까지 신청 접수

진안군이 온실가스 감축과 대기환경 개선을 위해 '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상반기 보급 물량은 전기승용차 60대, 전기화물차 18대, 전기버스 1대로 개인·법인·공공기관 등을 대상으로 차종별 국비 및 지방비 보조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특히 2026년부터는 기존 내연기관 차량을 전기차로 전환하는 군민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전환지원금'을 새롭게 도입한다.

차량 출고 및 등록은 2월 19일부터 전환지원금은 노후 내연기관 차량을

구매하는 경우 최대 130만 원이 추가 지급될 예정으로, 보다 많은 군민이 친환경 차량 전환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전기자동차 지원 신청 기간은 9일부터 오는 12일까지이며 신청인이 구입을 희망하는 전기자동차 제작·수입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

신청 자격은 신청일 기준 진안군에 3개월 이상 주소를 둔 개인 및 법인 등이다.

대상자 선정은 차량 출고·등록순으로 진행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차량 출고 및 등록은 2월 19일부터 가능하다.

지원 대상 차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무공해차 통합누리집에 등록된 전기자동차이며, 차종별 지원 금액과 세부 지원 조건은 진안군청 누리집에 게재된 공고문(2026년 상반기 전기자동차 민간보급사업 공고)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조봉진 진안군 환경과장은 "이번 전기자동차 보급 사업과 전환지원금 신설을 통해 군민의 전기차 구매 부담을 낮추고, 친환경 교통체계 전환을 더욱 가속화 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기후위기 대응과 지속 가능한 지역 환경 조성을 위해 다양한 친환경 정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임실군, 설맞이 수도권 소비자 집중공략

서울5곳서임실치즈한우등 농축산물 20% 할인

임실군이 설명절을 맞아 임실치즈 등 우수한 농축산물을 20% 할인판매하는 직거래장터를 열며, 수도권 소비자들에 대한 집중 공략에 나섰다.

군은 지난 5일부터 자매결연 도시인 서울 강서구를 비롯한 5개 자치구에서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에 참여해 지역 농가와 도시 소비자를 직접 잇는 상생의 장을 마련했다.

이번 설맞이 농특산물 직거래 행사는 5일과 6일 서울 강서구 마곡광장과 양천구 양천공원을 시작으로 △서대문구 홍제폭포광장(2월 7일) △구로구 구로구청광장, 마포구 마포구청광장(2월 11일 ~ 12일) 등 서울시 일대에서 설 명절 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이번 행사는 임실군과 서울 강서구가 1999년 자매결연을 체결한 이후 지속적으로 이어져 온 교류행사의 일환으로 도농 간 상생과 지역 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마련됐다. 행사장에는 임실엔지즈플러스티,

임실축협 등 임실군 관내 11개 업체가 참여해 임실치즈와 유제품, 임실한우, 한과 등 임실군을 대표하는 우수 농특산물을 시중가보다 최대 20% 할인된 가격으로 저렴하게 선보이며, 대도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다.

특히 가장 먼저 열린 서울 강서구 직거래장터 행사에서는 임실군 고향사랑기부제 참여자를 대상으로 기존 답례품 이외에 '두존쿠키(두바이준쿠키)'를 추가 증정하는 이벤트를 함께 진행해 농특산물 판매와 고향사랑기부제 참여 확산이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이끌어냈다.

이와 함께, 임실군청 공식 유튜브 채널 '임실엔 TV' 구독 이벤트도 병행 운영하며 서울 시민들에게 임실군을 알리는 데 주력했다.

군은 이번 행사를 계기로 임실의 청정 농특산물을 수도권 소비자에게 널리 알리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통한 농가 소득 증대는 물론 임실군 농특산물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를 한층 강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임실=한병열 기자

무주군, 음식점 시설 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

위생설비교체 등 사업비 70% 지원

무주군이 지역 내 음식점의 깨끗하고 쾌적한 외식 환경조성을 위해 '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주방·객석 환경개선, △위생 설비 교체, △노후시설 보수 등 시설·환경개선 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업소당 사업비의 70%(최대 7백만 원, 자부담 비율 30% 이상)를 지원한다.

대상은 무주군에 영업 신고를 한 영업자가 1년 이상 영업 중인 일반음식점으로, 영업자의 주소지 또는 법인의

소재지가 무주군 내로 돼 있어야 한다. 신청은 오는 27일까지 무주군청 안전관리과(1층) 위생관리팀(063-320-2328)에서 받으며, 신청 업소 중 2개소를 선정한다. 관련 내용은 무주군청 누리집(https://www.muju.go.kr) '알림마당'의 '고시공고'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무주군은 '음식점 시설·환경개선 지원사업' 추진이 노후화된 음식점 시설을 개선해 이용객 편의를 높이고 외식업 경쟁력 향상의 기반을 다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

/무주=최의호 기자

임실군, 장애인스포츠 강좌이용권 수시모집

장애인 건강 증진·생활체육 활성화

임실군은 지난 3일부터 장애인의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26년 장애인 스포츠 강좌이용권 수시모집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수시모집은 지난해 11월 진행된 정기모집 이후 신청하지 못한 장애인을 대상으로 마련됐으며, 정기모집 이후에도 신청이 가능하도록 접수 기간을 확대해 운영한다.

지원 대상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 장애인(5세~69세)으로, 선정된 이용자는 월 최대 11만 원 한도 내에서 스포츠강좌 수강료를 연중 지원받을 수 있다.

특히 장애인의 원활한 강좌 이용을 위해 보호자의 동반 참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월 지원금 범위 내에서 보호자 1인을 포함해 이용이 가능하며, 보호자 단독 수강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은 현장 결제가 불가능하고 온라인 결제만 가능하므로, 신청 및 이용 시 이 점을 반드시 유의해야 한다.

심민 군수는 "이번 수시모집을 통해 정기모집 기간을 놓친 장애인들에게도 스포츠 활동 참여 기회가 확대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건강 증진과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진안고원물, 입점농가업체 대상 정기교육 개최

진안군은 지난 6일 진안고원물 입점 농가를 대상으로 온라인 유통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기교육을 개최했다.

이번 교육은 진안고원물에 입점한 농가를 대상으로 '상세페이지 개선 실례방안', '2026년부터 변경되는 진안고원물 운영 사항 안내' 등 실질적인 교육 내용으로 구성되며, 농가의 온라인 판매 역량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특히, 상세 페이지 변경 실무교육을 통해 소비자에게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여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했다. 신활력플러스사업 추진단과의 연계를 통해 농가 홍보 기회를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6년부터 변경되는 진안고원물 운영 정책을 사전에 안내하여 농가들이 제도 변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진안고원물은 입점농가 교육과 지속적인 운영 개선을 통해 전년 대비 매출액이 32% 증가하는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교육과 소통을 통해 농가 소득 증대와 지역 농특산물 판로 확대에 힘쓸 방침이다.

진안군 관계자는 "이번 정기교육은 농가들이 온라인 시장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자리"라며 "앞으로도 진안고원물을 중심으로 농가와 함께 성장하는 유통 기반을 만들어 가겠다"고 밝혔다.

/진안=전길빈 기자



남원새마을금고, 남원시에 좁도리 쌀·라면 전달

남원시(시장 최경석)는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아 남원새마을금고(이사장 이주태)가 '사랑의 좁도리 운동'을 통해 모은 쌀과 라면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전달된 상품은 좁도리 쌀 620kg(한가액 200만 원)과 라면 67박스(한가액 100만 원)로 지역 내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나눔의 의미를 더했다.

특히 늘푸른산악회(회장 정형석) 회원들이 좁도리 쌀 모금에 적극 동참했으며 남원새마을금고에서는 라면을 지원해 지역사회 나눔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남원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의 상부상조 및 공동체 정신을 바탕으로 한 대표 사회 공헌 사업인 '사랑의 좁도리 운동'을 통해 지역 내 사회적 배려 계층을 위한 지원사업을 매년 전개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크게 이바지하고 있다.

이주태 이사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정성껏 모은 물품을 지역사회 이웃들에게 전달할 수 있게 되어 뜻깊고 기쁘게 생각하고, 작은 나눔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따뜻한 희망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 환경정화 캠페인 전개

신천지자원봉사단 전주지부(지부장 이용우·이하 전주지부)가 설 명절을 맞아 팔복동 일대 환경정화와 봉사자 55명이 참가해 탄소중립 캠페인을 전개했다.

전주지부는 지난 5일 덕진구 팔복동 신복마을 일대에서 환경정화 활동과 '자연이후르자·탄소중립' 캠페인을 펼쳤다. 이번 활동은 설 귀성객에게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고 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이용우 지부장은 "설 명절을 맞아 귀성객들이 깨끗하고 쾌적한 고향의 정취를 느끼길 바라는 마음으로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탄소중립 캠페인을 통해 지역사회와 상생하고 깨끗한 자연환경을 보호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전북타임스 문화부

티엔제이건설, 완주군장애인 체육발전기금기부

온누리상품권 1천만원 전달 "지역과 긴밀히 협업할 것"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티엔제이건설(주)이 지난 5일 완주군 장애인 체육회에 온누리 상품권 1,000만 원 상당을 기부하며 완주군 장애인 체육발전과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보탤 예정이다.

티엔제이건설은 1997년 설립된 전기·통신·소방 분야 전문기업으로, 그동안 다양한 기부활동에 앞장서 왔다.

이번에 기부된 온누리상품권은 완주군 장애인체육회에 전달돼 장애인 체육 활성화와 취약계층의

건강한 생활 지원에 활용될 예정이다.

고태우 티엔제이건설 대표는 "이번 기부가 장애인들이 체육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당당한 구성원으로 자리잡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기부를 통해 지역사회와 긴밀한 협업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나눔으로 지역사회 기여에 앞장서 주신 티엔제이건설에 감사드린다"며 "완주군도 지역 소외계층을 위해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완주=김명근 기자



완주군 봉동읍에 소재한 티엔제이건설(주)이 지난 5일 완주군 장애인 체육회에 온누리 상품권 1,000만 원 상당을 기부했다



임실군 삼계면, 설 명절 맞아 독거 어르신 위문 방문

임실군 삼계면은 설 명절을 앞둔 지난 3일, 지역 내 저소득 독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위문 방문을 실시하며 따뜻한 정을 나눴다.

이번 방문에는 한상엽 삼계면장을 비롯한 삼계면 맞춤형복지팀이 참여해 관내 저소득 독거 노인 3가정을 직접 찾아 건강음료 세트와 과일 등 위문품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와 생활 여건을 살피며 안부를 전했다. 특히 설 명절을 홀로 보내는 어르신 가정을 방문해 정서적 위로와 함께 따뜻한 격려의 말을 전하며, 명절의 외로움을 덜어주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위문품을 전달받은 한 어르신은 "명절이 다가오면 더욱 외로웠는데 이렇게 직접 찾아와 주셔서 큰 힘이 된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한상엽 삼계면장은 "어르신들께서 외롭지 않고 따뜻한 설명절을 보내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민·관이 협력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세심하게 살피고, 소외계층 보호를 위한 현장 중심의 맞춤형 복지 행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실=한병열 기자

다올·KJ, 정읍시 경로당에 달걀 2300판 기탁

"따뜻한 공동체 만들어가겠다"

정읍시 감곡면 소재 기업 다올(대표 모정태)과 이평면 소재 농업회사법인 KJ(대표 정용비)가 지난 6일 설 명절을 맞아 관내 경로당과 취약계층에 시가 1200만원 상당의 달걀 2300판을 정읍시에 기탁했다.

이번에 전달된 달걀은 관내 23개 읍·면·동 경로당을 비롯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 가구에 배분될 예정이다.

모정태·정용비 대표는 "지역사회와 함께 성장하는 기업으로서 나눔은 당연한 책임이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통해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데 힘쓰겠다"고 말했다.

이학수 시장은 "기탁해주신 달걀은 어르신들과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힘이 될 것이며, 시에서도 복지 사각지대가 없도록 세심해 살피겠다"고 화답했다.

/정읍=김정민 기자



익산 영생당한약방, 정기 후원으로 온정 확산

익산시에 이웃을 위한 꾸준한 나눔이 전달돼 지역사회에 온기를 더하고 있다.

영생당한약방(대표 임숙현)은 지난 6일 시정을 방문해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기탁했다. 이번 성금은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저소득 가정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영생당한약방은 이번 성금 기탁뿐만 아니라 매월 정기 후원 형태로 나눔을 이어가며 지역사회 나

눔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역 저소득층 14명을 대상으로 매월 1인당 10만 원씩, 총 140만 원을 정기적으로 후원하고 있다. 이를 통해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생활을 돕고 자립 기반 마련에 힘을 보태고 있다.

임숙현 대표는 "작은 정성이지만 어려운 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라고, 앞으로도 나눔을 꾸준히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익산=최준호 기자



매일유업 상하공장, 고창군에 우유 200박스 기부

매일유업 상하공장(공장장 이정택)이 고창군 상하면(면장 박광원)에 유기농 우유 200박스(약 360만 원 상당)를 기부하며 지역사회 나눔을 실천했다.

매일유업 상하공장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성금을 모아 마련한 것으로, 전달된 멸균우유는 관내 경로당과 저소득층 아동, 홀로 어르신 등을 위해 배부될 예정이다. 매일유업 상하공장은 매년 지역 사회를 위한 유제품 기부를 꾸준

히 이어오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고 있다. 특히 지역 주민들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하고자 다양한 나눔 활동을 지속적으로 전개하고 있다.

이정택 공장장은 "임직원 모두의 마음을 모아 준비한 기부가 지역사회에 보탬이 되길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나눔과 사회공헌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고창=백종규 기자



진안군 성수면, 어르신 공경 담은 떡국떡 나눔 봉사 진행

진안군 성수면에서는 지난 6일 설 명절을 앞두고 떡국떡 나눔 봉사활동이 진행됐다.

이번 봉사활동은 상달마을 김석원 이장을 비롯한 면 주민 14명이 지역 어르신들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는 뜻을 모아 자발적으로 백미 200kg과 떡국떡 수공비, 포장 재료를 후원하면서 진행됐다.

이들은 진무장 재가복지센터에서 떡국떡 포장 작업을 한 뒤 봉사자들이 2인 1조로 성수면 관내 32개 마을회관을 직접 방문해 떡국떡을 전달하고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며 공경의 마음을 전했다.

한편, 이번 떡국떡 나눔 봉사활동은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진 의미 있는 사례로, 지역사회에 나눔과 효의 가치를 확산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진안=전길빈 기자

한파 6대 행동요령

'작은실천'으로 사고 예방 합시다

기상상황 확인하기
한파주의보 -12°C 이하
한파경보 -15°C 이하

야외활동 자제
저체온증 동상 위험 급증

외출 시 방한용품 착용

따뜻한 장소에서 휴식

주변 이웃 안전살피기

수도관 동파 예방

〈一事一言〉



미국적 다주택 구조 끊어낼 마지막 기회

김관춘
주필

이재명 대통령이 연일 다주택 보유자에 대한 중과세를 약속대로 관철하겠다는 뜻을 밝히고 있다.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왜곡된 주택 시장을 정상으로 되돌리겠다”는 메시지를 반복한 배경에는, 주거 투기의 대상이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이어야 한다는 분명한 인식이 깔려 있다.

정부의 이 같은 기조는 일시적 수사가 아니라, 부동산 정책 전반을 관통하는 일관된 방향으로 읽힌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처한 현실을 고려할 때, 이 정책은 선택이 아니라 피할 수 없는 과제다. 한국, 특히 서울 등 수도권 주택 시장은 이미 오래전부터 ‘비정상’ 상태에 놓여 있다. 집은 더 이상 삶의 터전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되었고, 그 결과 다주택 보유를 통한 불로소득이 구조화됐다.

일부는 집값 상승의 과실을 얻는 동안, 청년과 무주택 서민, 신혼부부들은 끝없이 높아지는 진입 장벽 앞에서 좌절을 반복해 왔다. 주거 양극화는 자산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이는 다시 교육·결혼·출산 포기기로 이어지며 사회 전체의 지속 가능성을 잠식해 왔다. ‘미국적’이라는 표현이 과하지 않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 대통령이 다주택자 중과세를 다시 전면에 내세운 것도 이런 구조적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대통령의 최근 발언들을 보면, 정부는 세금 부과 그 자체를 목적화하지 않는다. 핵심은 왜곡된 신호를 바로잡는 데 있다.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해도 부담

이 크지 않다면, 시장은 자연스럽게 투기를 학습한다. 반대로 보유 비용을 높이고, 실거주 중심의 수요에는 안정적 공급과 금융 지원을 병행한다면, 주택은 다시 ‘사는 곳’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

물론 반발도 거세다. 일부 토건 언론과 이해집단은 중과세가 시장을 위축시키고, 거래 절벽과 가격 급락을 불러올 것이라고 경고한다. 그러나 그 논리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상당 부분은 기존 기득권의 불안을 대변하는 데 그친다. 시장의 단기적 조정은 불가피할 수 있다. 하지만 그 조정이 없다면, 우리는 이미 경험했듯이 끝없는 가격 상승과 버블, 그리고 그 붕괴가 남긴 상처를 또다시 반복하게 된다.

최근 보도에서 주목할 대목은 정부가 과거 정책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방향 자체는 흔들지 않겠다는 점이다. 세율 조정의 미세한 조율, 지역·유형별 차등 적용, 실수요자 보호 장치 보완 등은 정책의 완성도를 높이기 위한 과정이지, 원칙의 후퇴가 아니다. 이는 ‘세금 폭탄’이라는 자극적 프레임에서 벗어나, 조세 정의와 시장 정상화라는 본질로 논의를 옮겨야 할 시도로 읽힌다.

다주택자 중과세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은 결국 ‘누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가’라는 질문으로 귀결된다. 주택 가격 급등의 책임을 시장 탓, 정부 탓으로만 돌리는 답론은 많았지만, 그 과정에서 다주택 보유를 통해 누적된 불로소득의 문제를 정면으로 다룬 경우는 드물었다.

이번 정책은 그 공백을 메우려는 시도로 평가받고 있다. 자산 축적의 결과가 개인의 선택을 넘어 사회 전체의 부담으로 전가될 때, 국가는 조정자로 나설 수밖에 없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조세 정의의 회복이라는 측면이다.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는 다수의 국민 입장에서 볼 때, 부동산을 통해 막대한 자산을 축적하면서도 상대적으로 낮은 보유 부담을 지는 구조는 분명한 불공정이다. 따라서 중과세는 처벌이 아니라 균형을 회복하는 장치다.

다주택자 중과세는 단독으로 존재하는 정책이 아니다. 공공임대 확충, 도심 고밀 개발, 지방균형발전, 금융 규제와 공급 정책이 함께 맞물릴 때 비로소 효과를 낸다. 이 대통령이 연일 강조하는 것도 바로 이 지점이다. 세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며, 궁극적 목표는 국민 누구나 소득 수준에 맞는 주거를 안정적으로 누릴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데 있다.

더 나아가 이 정책은 지방 소멸과 수도권 과밀이라는 구조적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수도권 주택을 여러 채 보유하는 행태가 지속되는 한, 자본과 인구의 쏠림은 멈추기 어렵다. 보유 비용을 현실화하고, 지역 주거와 산업 정책을 연계한다면, 주택 정책은 균형 발전의 촉매로 작동할 수 있다.

물론 정책 성공의 관건은 일관성이다. 시장은 정부의 말보다 행동을 본다. 과거처럼 여론의 반발에 밀려 원칙이 흔들린다면, 투기 수요는 다시 고개를 들 것이다.

다주택자 중과세가 끝까지 관철될 때, 비로소 시장은 새로운 규칙을 학습하게 된다.

우리는 이미 너무 많은 시간을 잃었다. 부동산 문제를 건드리면 정치적 부담이 크다는 이유로, 수차례 타협과 후퇴가 반복됐다. 그 사이 정부 정책은 신뢰를 잃고 집값은 더 올랐으며, 불평등은 더 깊어졌다. 이제는 불편하더라도 가야 할 길을 가야 한다. 다주택 보유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분명히 하고, 그 부담을 공정하게 나누는 일은 국가의 책무다.

이재명 대통령의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이 성공하기를 염원하는 이유는 단순하다. 이 정책이 성공해야만, 집이 다시 삶의 기반으로 돌아오고, 노력과 노동이 자산 불평등에 짓눌리지 않는 사회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주택 시장 정상화는 특정 정부의 성과를 넘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좌우할 문제다.

이제 남은 것은 흔들림 없는 실행력과 사회적 합의를 향한 끈질긴 설득이다. 이 ‘미국적 위기’를 끊어내기 위한 시도가 또다시 좌초되지 않기를, 그래서 다음 세대에게는 조금이나마 덜 불공정한 출발선을 물려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란다.

사설

민생을 챙기는 설, 전북의 책임 있는 행정

설 명절은 가족과 이웃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이어야 하지만, 고물가와 경기 침체가 겹친 현실 속에서 많은 도민에게는 여전히 부담이 큰 시기다. 전북도가 설을 앞두고 ‘민생안정 종합대책’을 본격 가동한 배경도 여기에 있다. 이번 대책은 지역경제, 민생지원, 생활편의, 안전대응 등 4개 분야 14개 과제로 구성돼 있으며, 단순한 선안이 아니라 도민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현장 중심 대책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무엇보다 눈에 띄는 것은 상생하는 지역경제를 위한 선제적 물가 대응이다. 명절 필수품 가격 급등은 서민 부담으로 직결되는 만큼, 주요 농축수산물과 임산물 16종을 집중 관리하고 원산지 표시, 소비기한, 과대포장 점검까지 병행하는 것은 꼭 필요한 조치다.

여기에 국산 농축수산물을 온누리상품권으로 구매하면 최대 30%를 환급해주는 정책과 지역사랑상품권 할인 확대는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에 숨통을 틔우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 촉진이 단기 이벤트에 그치지 않도록 지역 우수상품 판로 확대까지 연계한 점도 긍정적이다.

민생지원 대책 역시 총출동이다. 저소득 계층과 사회복지시설, 독거노인 등 취약 명절 음식 배달은 ‘함께하는 설’의 의미를 되살린다. 장애아 돌봄 강화, 자립준비청년과 노숙인, 피해 여성 등 소외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 확대는 행정의 세심함을 보여준다.

더불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한 7,800억 원 규모의 특별보증과 긴급자금 지원, 처리기간 단축은 위기 극복을

돕는 실질적 처방이다. 임금체불 예방을 위한 집중 지도 역시 명절 전후 노동자의 불안을 덜어주는 중요한 장치다.

생활편의 대책도 빠짐없다. 귀성·귀경객 증가에 대비한 철도와 고속버스 증편,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와 공영주차장 무료 개방은 이동 부담을 낮춘다. 쓰레기 특별수거와 환경정비, 오염사고 대비체계 구축은 쾌적한 명절을 위한 기본이다.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와 문어병·의원, 약국 확대는 연휴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을 줄여준다.

안전대응 강화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명절 종합상황실과 재난상황실 운영, 소방 특별경계근무, 취약시설 사전 점검은 사고를 예방하는 최소한의 안전망이다. 수도 공급과 가축전염병 대응까지 포함한 종합 관리체계는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한 책임 행정의 자세다.

아울러 이번 대책이 지역경제 회복과 민생 안정의 지속 가능한 기반으로 이어지도록 사후 점검과 보완도 병행돼야 한다.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부족한 부분은 즉각 보완하는 유연한 행정이 뒤따를 때 정책의 신뢰는 높아진다. 설 명절을 계기로 쌓은 행정과 도민 간의 신뢰가 일상 속 민생 안정으로 확장돼야 한다.

이제부터 중요한 것은 실행력이다. 계획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때 도민의 체감도는 높아진다. 전북도의 이번 대책이 도민 한 사람 한 사람의 명절 풍경을 조금이라도 따뜻하게 바꾸는 실질적 성과로 이어질지 기대한다. 모두가 웃을 수 있는 설 명절, 그 출발선에 전북의 민생안정 대책이 서 있다.



문화재 열전

회사동석탑 (전북특별자치도 유형문화유산)

- 분류 - 유적건조물, 종교신앙, 탑
- 지정일 - 1976년 4월 2일
- 시대 - 고려시대
- 소재지 - 진안군 상전면 주평리 17번지

JBT 전북타임스 Jeonbuk Times 2026년 10월01일 創刊/ 등록번호 전북 가-00022(윤리우)54990 www.jeonbuktimes.co.kr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덕진구 태진로77(진북동)5층

발행, 편집인 송민순	편집국장 장정철	인쇄인 김은주
대표전화 282-9601	업무국 팩스 282-9604	편집국 팩스 283-8800
전주시시 010-9945-4113	군산지국 010-8841-7942	무주지국 010-6411-0835
부안지국 010-7247-3947	중양지시 010-9678-4271	남원지국 010-2285-3987
임실지국 010-8642-6502	고창지국 010-2258-3734	인후지시 010-8640-6865
익산지국 010-9560-3075	진안지국 010-2433-1721	완주지국 010-3672-0308
팔복지시 010-3015-4791	김제지국 010-4572-6112	정수지국 010-8626-6049
송천지시-010-5242-3694	정읍지국 010-2800-2934	순창지국 010-5312-7293

-구독료 : 월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 윤리 강령 및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오늘의시

인동(忍冬) 잎 / 김춘수

눈 속에서 초겨울의 붉은 열매가 익고 있다. 서울 근교(近郊)에서는 보지 못한 핑지가 하얀 작은 새가 그것을 쪼아먹고 있다.

월동(越冬)하는 인동(忍冬) 잎의 빛깔이 이루지 못한 인간(人間)의 꿈보다도 더욱 슬프다.

론가로서 활동했다. 1948년 첫 시집인 ‘구름과 장미’ 출간을 시작으로 ‘산악(山嶽)’, ‘꽃을 위한 서시’ ‘부다페스트에서의 소녀의 죽음’ 등을 발표했다. 1958년에 한국시인협회상, 1959년에 아시아 자유문학상을 수상했다.



전북타임스 TIMES 자연보호 캠페인

전북의보물, 갯벌과 철새를 지켜주세요.

남원시,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으로 농업인의 삶의 질 높인다



여성농업인 복지 지원사업 본격 추진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여성농업인 맞춤형 복지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한다고 밝혔다.

시는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2026년 한 해 동안 총 14억 2,100만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해 7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주요 사업으로는 △여성농업인 특수건강검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지원 △여성농업인 편의장비 지원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출산여성도우미 지원 등이다.

(편집자주)

여성농업인 건강관리 강화 및 영농 편의 증진

남원시는 여성농업인의 주요 건강문제로 지적되는 근골격계 질환과 만성 피로 예방을 위해 특수건강검진을 지원한다.

해당 검진에는 일반 건강검진뿐만 아니라 농작업성 질환의 조기 진단과 예방 교육, 전문의 상담 등이 포함된다.

올해 검진 대상은 51세부터 80세까지의 여성농업인 중 짝수년도 출생자로, 검진비의 10%만 분담이 부담하면 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연중 수시로 가능하며, 예산 소진 시까지 지원한다.

'농업e지' 앱을 통한 온라인 신청도 가능

능하다.

또한 반복적인 농작업으로 인한 신체 부담을 줄이기 위해 농작업대, 종전식 분무기 등 10종의 농작업 편의장비를 지원한다.

해당 사업은 고령 여성농업인의 작업 효율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올해부터는 신청자격이 농업경영체 등록 여성농업인으로 확대되어 농촌뿐 아니라 도시지역 여성농업인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하면 된다.

문화복지 지원 확대 및 복지 사각지대 해소

여성농업인의 문화·여가 활동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20세 이상 75세 미만 여

성농업인에게 1인당 13만 원 상당의 '여성농업인 생생카드'를 지원한다.

또한, 시 자체사업을 통해 75세 이상 여성농업인까지 지원 대상을 확대해 복지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신청기간은 1월 21일부터 3월 6일까지이며,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출산·돌봄 지원으로 여성농업인 영농 참여 확대

남원시는 여성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인원과 산내 지역에 여성농업인센터 2개소를 운영하고 있다.

센터에서는 영유아보육, 방과후 학습 지도, 고충 상담, 영농교육, 문화 활동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다.

아울러 농번기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인원 원광어린이집과 대산 운교어린이 집 2개소에서 농번기 주말 아이돌봄방을 운영해, 여성농업인이 안심하고 영농에 전념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출산 여성농업인을 대상으로는 출산 전 30일부터 출산 후 1년까지 최대 100일 동안 농가 도우미 비용의 일부를 지원해, 출산과 육아로 인한 영농 중단을 최소화하고 돌봄 부담을 사회적으로 분담하는 농촌 환경 조성에 나선다.

농촌 생활 여건 개선으로 안전한 영농 환경 조성

여성농업인의 농업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농작업 현장에 친환경 화장실 설치를 지원하는 사업도 추진한다. 해당 화장실은 미생물(EM 등), 톱밥, 기포 등을 활용해 악취 발생이 적고 사용과 관리가 용이한 것이 특징이다.

지원대상은 들녘, 하우스 밀집 지역, 과수화훼 등 집단 작물 재배 지역 가운데 3호 농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장소이며, 개소당 5백만 원 이내로 지원된다.

시설 설치 후에는 대표 농가를 관리 책임자로 지정해 위생 관리가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다.

남원시는 2026년 1월 사업 지침 시달을 시작으로, 상반기 집중 홍보와 신청접수를 통해 대상자 누락 없이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여성농업인은 농업과 농촌을 지탱하는 핵심 주체"라며 "여성농업인이 건강하고 행복해야 농촌이 지속 가능한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맞춤형 복지 정책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남원=정하복 기자

피어났다 남원

고향사랑기부제로 남원을 응원해주세요

남원시 고향사랑기부제

기부자(개인)의 주소지가 남원이 아니라면 누구든지 남원에 기부가능
- 1인당 연간 2,000만원까지 ※모든 지자체에 기부한 금액 합산 기준

기부혜택

기부액 10만원 전액 공제

10만원~20만원 40% 공제
20만원 초과분 16.5% 공제

기부액 30% 답례품 제공

지역특산물, 남원사랑상품권 등

기부방법

온라인 기부

카메라 켜서 QR찍고
QR코드 스캔하기

회원가입하고 남원시에 기부하기 누르고
기부액 입력하고 답례품 선택!

대면기부

농협창구 방문 신청(전국 어디서나)

2026년 남원시 고향사랑 기금사업

- 관내 중학생 해외영어캠프 지원
- 남원 인재학당 기자재(셔틀버스 등) 지원
- 거동불편 노약자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 지원
- 남원시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지원

문의 남원시 대외협력팀 063-620-6097

20만원 기부 시 세액공제 14만원+답례품 6만원으로 전액 돌려드리는 혜택!